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현대 한국어의 ‘X+化’ 구성 연구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金 琦

<한국어초록>

현대 한국어의 ‘X+化’ 구성 연구

김 기

본고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에서 확인되는 ‘X+化’ 구성의 단어들을 대상으로 삼고, 공시적인 관점에서 2자어 ‘X+化’와 다자어(多字語) ‘X+化’를 구별하여 그 의미와 문법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는 ‘化’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자어 ‘X+化’와 다자어 ‘X+化’의 의미적·문법적 특징을 두루 살펴보았다.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는 한자 ‘化’는 그 의미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化’의 중심적인 의미인 [변화(變化)]로,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을 뜻한다. 둘째는 ‘化’의 기원적인 의미인 [교화(敎化)]로,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뜻한다. 셋째는 [조화(造化)]로 “천지자연이 만물을 생육(生育)하는 작용”을, 넷째는 [화학(化學)]으로 “자연 과학의 한 분야”를 각각 뜻한다. 마지막 다섯째는 “그렇게 만들거나 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셋째부터 다섯째까지의 의미는 모두 ‘化’의 중심적인 의미, [변화]에서 파생된 주변적인 의미이다.

다음으로는 ‘X+化’를 전통적인 한자어 분류 방식에 따라 2자어와 다자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2자어 ‘X+化’의 대표적인 의미적 특징으로는 이들이 서술성 명사뿐만 아니라 비서술성 명사나 불완전서술성 명사일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2자어 ‘X+化’에서 X와 ‘化’의 의미 관계는 “수단, 방법”, “동의”, “방향, 결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자어 ‘X+化’의 문법적 특징은 한문 문법을 바탕으로 이들을 보족 구성, 병렬 구성, 접미 구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중 접미 구성의 2자어 ‘X+化’는 상대 빈도, 어근 활성도, 의미의 어휘화 등의 세 가지 접근 방식으로 분석해 봤을 때, 현대 한국어에서 파생어보다는 단일어로 취급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다자어 ‘X+化’의 의미적 특징과 문법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먼저 접미

사 ‘-化’의 의미를 선행요소 X와의 관계에 따라 “X를 만들거나 X가 됨”, “X의 상태를 만들거나 그렇게 됨”, “X의 특성·성질을 지니게 만듦”이라는 세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어근 X의 의미에 대해서는 상(相)적 특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X에 적용해 보았는데, 접미사 ‘-化’가 [-결과성]을 지니는 어근을 취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근 X의 의미 반영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근 X의 기본적인 의미가 파생어 ‘X+化’에 반영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어근 X가 주변적인 의미로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X의 주변적인 의미만 반영하는 경우에는 주로 기본적인 의미가 주변적인 의미보다 구체적인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일부 파생어 ‘X+化’들은 어근 X의 추상적인 의미와만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파생어 ‘X+化’의 문법적 특징은 내부 문법과 외부 문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내부 문법의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접미사 ‘-化’는 고유어보다 한자어, 외래어와 더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둘째, 접미사 ‘-化’는 단일 형태소뿐만 아니라 복합 형태소, 심지어 단어 이상의 단위와도 결합할 수 있다. 다만 결합할 수 있는 구의 종류는 수식 구성으로 제한되어 있다. 외부 문법의 특징으로는 주로 ‘비(非)-, 탈(脱)-, 반(反)-, 재(再)-’ 등 일부분 한자 접두사가 파생어 ‘X+化’에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非+X+化’, ‘脱+X+化’, ‘反+X+化’ 등의 구조로 된 단어들의 분석 결과는 단어마다, 심지어 하나의 단어에서도 의미 기준과 문법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실상 이 단어들의 형성 과정은 밝히기가 어렵고 단일한 분석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주요어: 化, ‘X+化’, ‘접미사 -化’, 한문 문법, 내부 문법, 외부 문법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및 대상 ····· 1

1.2. 선행 연구 ····· 2

1.3. 논의의 구성 ····· 6

2. 한자 '化'의 의미 ····· 8

2.1. 한자 '化'의 기원적인 의미 ····· 9

2.2. 한자 '化'의 중심적인 의미 ····· 11

2.3. 한자 '化'의 주변적인 의미 ····· 13

3. 2자어 'X+化' ····· 18

3.1. 의미적 특징 ····· 18

3.1.1. 'X+化'의 서술성 ····· 18

3.1.2. X와 '化'의 의미 관계 ····· 20

3.2. 문법적 특징 ····· 22

3.2.1. X와 '化'의 문법 관계 ····· 22

3.2.2. 접미 구성인 2자어의 문법 ····· 26

3.3. 소결 ····· 38

4. 다자어 'X+化' ····· 41

4.1. 의미적 특징 ····· 41

4.1.1. 접미사 '-化'의 의미 ····· 41

4.1.2. 어근 X의 의미적 특징 ····· 48

4.2. 문법적 특징 ····· 60
4.2.1. ‘X+化’의 내부 문법 ····· 60
4.2.2. ‘X+化’의 외부 문법 ····· 65

5. 결론 ····· 71

<참고문헌> ····· 74
<부록1> 《연세한국어사전》에 수록된 ‘X+化’ ····· 77
<부록2>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X+化’ ····· 79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본고는 현대 한국어에서 확인되는 'X+化' 구성의 단어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공시적인 관점에서 2자어 'X+化'와 다자어(多字語) 'X+化'를 구별하여 그 의미와 문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X+化'의 의미와 문법을 검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시적인 정보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X+化'는 '化'로 끝나는 단어를 의미한다. '化' 앞에 결합되는 선행 요소는 'X'로 표시하기로 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X+化' 구성을 지니는 단어로는 '변화(變化), 전화(轉化)'와 같은 2자어, '공업화(工業化), 현실화(現實化)', '이성질화(異性質化)'와 같은 다자어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2자어와 다자어를 구별하여 분석하는 것과 같이, 본고에서도 2자어와 다자어를 구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X+化' 구성의 예들은 주로 《연세한국어사전》[1], 《표준국어대사전》[2], 《우리말샘》[3], 그리고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4]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일부 사전에서 확인되는 2자어 'X+化' 중에는 '향화(向化)', '옥화(沃化)'와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들은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지 않으므로, 2자어 'X+化' 구성의 예들은 주로 《연세》에서 가져오도록 한다. 《연세》에 등재된 표제어는 사용 빈

1) 《연세한국어사전》은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어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이 사전은 편찬의 기본 원칙이 올림말을 빈도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은 5만2천여 개의 단어만 선정되었다. 이하 《연세》라 칭한다.

2) 《표준국어대사전》은 수록 범위가 보다 넓은 국어사전이다. 표준어를 비롯하여 북한어, 방언, 옛말을 두루 수록하였으며 흔히 쓰는 비표준어도 올렸다. 또는 일반어뿐만 아니라 전문어, 고유 명사도 수록하였다. 이하 《표준》라 칭한다.

3) 《우리말샘》은 신어, 방언, 전문 용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것은 특징이다.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말뿐만 아니라, 국어사전에서는 싣지 않았으나 실제로 쓰이는 말들도 대폭 수록하였다.

4)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는 1,494개 파일이 합쳐져서 전체를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X+化'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추출하기 위해서 현대 문어뿐만 아니라 현대 구어 자료도 함께 살펴보았다.

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는 연구 대상에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광호(2007a)에서 파생어 'X+化'의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 목록에 대한 정리를 거의 완비해 두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파생어 'X+化' 연구의 참고 자료로 삼겠다.

1.2. 선행 연구

현대 한국어 'X+化'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바가 있는데, 이들을 일일이 검토해 보더라도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동일하게 'X+化'로 표시될 수 있을지라도 다자어 'X+化'와 2자어 'X+化'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음절 수가 다르다는 차이뿐만 아니라 의미적, 문법적 차이도 있다.

노명희(2005)는 다자어 'X+化'와 2자어 'X+化'의 차이점을 인식한 초창기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노명희(2005:224)에서 다자어 'X+化'의 '化'는 접미사이지만 2자어 'X+化'의 '化'는 일종의 어근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였다. 2자어 'X+化'의 '化'와 다자어 'X+化'의 '化'는 어원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직관적인 판단에 대하여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접미사 '化'는 일반적으로 서술성이 없는 명사 어근에 결합하여 그 명사에 서술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지니는 반면에, 2자어 'X+化'의 '化'는 주로 상태성이나 동작성이 있는 1자 어근에 결합한다는 특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도 일부의 예만을 근거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더 보완하여 통계적인 연구로 발전시킬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2자어 'X+化'와 다자어 'X+化'의 여러 측면의 차이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둘째, 동일한 2자어 'X+化'라도 '化'의 기능적 가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김창섭(2001:188)에서는 '化'가 2자어에서 비서술성 명사(예: 문화, 왕화[5], 조화)도 형성

하고, 서술성 명사(예: 개화, 둔화, 순화, 진화)도 형성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2자어 'X+化'에서 'X'의 성격에 따라 '化'의 기능적 가치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化' 자체의 성격에 따라 기능적 가치가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의미론적인 분석을 통하여 '化' 자체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비서술성 명사도 만들고 서술성 명사도 만드는 특성이 있음을 설명해 보이고자 한다.

이 외에도 2자어 'X+化'의 문법적 분석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국어의 2자어들은 일반적으로 한문 문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문 문법에 의한 2자 한자어의 분석 방식은 이미 신창순(1969), 송기중(1992), 김창섭(1999) 등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바가 있다. 신창순(1969:6-9)에서는 2자 한자어들은 한문 문법을 기반으로 그 성분들의 통사론적 관계를 구별하여 병렬 구성, 수식 구성, 어근+접사 구성, 보족(補足) 구성, 주어+서술어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송기중(1992)에서 한자어의 문법 구성은 주어+서술어, 서술어+목적어, 명사+명사, 서술어+서술사, 수식어+명사, 서술사+수식사로 제시되었다. 김창섭(1999:4-5)에 따르면 2자 한자어들은 수식 구성, 병렬 구성, 어근접미 구성, 주어+술어 구성, 술어+목적어 구성, 술어+보어 구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2자어 'X+化'의 내부 구조를 한문 문법을 통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2자어 'X+化'를 분류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어근접미 구성의 2자어 'X+化', 가령 '미화(美化), 녹화(綠化)'와 같은 단어들은 중국어에서도 한국어와 비슷한 용법 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現代漢語詞典》에서는 '미화(美化), 녹화(綠化)'와 같은 단어의 '化'를 접사로 제시하고 있다. 2자어 'X+化' 구성에서의 '化'를 접미사로 인정하는 중국의 논문은 胡松柏(1982), 崔玉珍(2004), 陳曉明(2005), 史紅改(2009)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어 연구에서 2자 한자어는 일반적으로 파생어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김창섭(2001, 2013)의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과 '2자어와 3자어론'에 의하면 '지적(知的), 시적(詩的)'과 같은 2자 한자파생어는 예외적인 구성이고, 일반적으로 고유어 문법의 한자 2자어 분석은 의미론적 존재로서의 '형태소

5) 왕화(王化): 임금의 덕행으로 감화하게 함. 또는 그런 감화.

+형태소'로 분석하고 그 성분 간의 문법 관계는 분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2자어 'X+化'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법적 분석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적(知的), 시적(詩的)'과 마찬가지로 'X+化'를 한국어의 예외적인 2자 한자파생어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의 '化'는 접미사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둘째, 'X+化'를 의미론적 존재로만 분석하고 문법적으로 더 이상 분석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정리하면 입장에 따라 각각 'X+化'를 파생어 또는 단일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섭(2013)에서 밝혔듯이 '지적(知的), 시적(詩的)' 등 2자 한자어에서 접미사 '-的'은 1자 어근 뒤에서 두음 경음화가 일어나 [쩍]으로 발음된다. 이러한 두음 경음화는 2자 한자파생어의 예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적(知的), 시적(詩的)'에서는 "1자+'-的'"의 예외성을 화자가 인식하고 있고 마침 '-的 (적)'의 'ㅈ'을 경음화함으로써 그러한 인식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문화(文化)' 등에서는 "1자+'-化(화)'"의 예외성을 화자가 인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쩍]처럼 표현으로 드러낼 방법이 없다. 또한 《표준》 에서 "1자+'-化'"는 153개 수록되었는데, "1자+'-的'"은 35개만 수록되었다. "1자+'-化'"는 수적으로 "1자+'-的'" 구성보다 더욱 많기 때문에, 한국어 화자에게는 예외적인 2자 한자파생어로 인식되기 어려울 듯하고 단일어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경우, 2자어에서 '化'가 가진 형태론적 자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일치의 원인을 해명해 보고자 한다.

셋째, 기존의 다자어 'X+化'에[6] 대한 연구가 활발히 다루어졌지만, 의미적·문법적 검토 등 여러 측면을 아울러 접근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먼저 의미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다자어 'X+化'에 접근한 연구는 최현배(1971), 원대성(1985), 전민연(1994), 노명희(2005) 등이 있다. 최현배(1971), 정민영(1994), 노명희(2005)에서는 파생접미사 '-化'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최현배(1971:672)에서는 '-化'를 "그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의 의미를 지닌 뒷가지로 보고 있고, 정민영(1994:88)에서는 '化'를 "선행어기처럼 되다"라는 의미를 지닌 접

6) 여기서 다루는 다자어 'X+化'는 주로 파생어이고 '불교문화(佛教文化)'와 같은 소수의 합성어는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겠다.

미사로 보았다. 노명희(2005:217)에서는 접미사 '-化'의 의미를 주로 "서술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접미사 '-化'를 서술성 접사라고 불렀다. 그러나 '강조화(强調化), 구체화(具體化)'처럼 이미 동작성과 상태성을 가지는 어근이[7] 접미사 '-化'와 결합된 단어의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접미사 '-化'가 서술성을 부여한다는 기술이 보편성을 띠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서술성 접사'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기존의 업적들을 바탕으로 접미사 '-化'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원대성(1985:74)에서는 'X+化' 구성의 'X'에 주목하여 어근 'X'의 상(aspect)에 따른 접미사 '-化'의 제약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어근 'X'는 구체성, 추상성, 상태성, 동작성을 모두 지닐 수 있는데, 정도성과 부사성은 제약되어 있어 접미사 '化'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이미 노명희(2005:219)에서 예시를 통해 반박된 바 있기 때문에, 접미사 '-化'가 어근 'X'에 대해 가지는 의미제약을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 기존 연구에는 어근 'X'의 의미가 파생어 'X+化'의 의미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는가, 어근 'X'의 의미가 파생어 'X+化'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나타나는가, 거기에는 규칙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사전을 편찬할 때 뜻풀이 기술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왕의 연구를 바탕으로 파생어 'X+-化'의 의미와 관련하여 접미사 '-化'의 의미, 어근 'X'의 의미가 파생어에 반영되는 정도, 또한 접미사 '-化'가 어근 'X'에 대해 가지는 의미 제약을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논의 가운데 문법적 관점에서 다자어 'X+化'에 접근한 연구로는, 노명희(2005), 이광호(2007a,b) 등을 들 수 있다. 노명희(2005)에서는 어근 'X'가 독립적인지, 의존적인지에 따라 파생어 'X+-化'를 분류하였다. 한자어뿐만 아니라 외래어와 고유어 기원의 어근도 접미사 '-化'와 결합할 수 있다는 형태론적 특징을 밝혔

7) 고영근·남기심(1985:72)에서는 한자어 등 외래어에 해당하는 서술성 명사가 '하다'와 함께 쓰여 동사, 형용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들고, 이들이 동작성·상태성을 지닌 명사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술성 어근을 동작성과 상태성을 지니는 어근으로 보고자 한다.

다. 이광호(2007a,b)에서는 주로 상대 빈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접미사 '-化'의 생산성을 측정하여 그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논의에 의하면 파생어 'X+-化'들은 전체적으로 저빈도 단어가 다수를 차지하는 집합이고 '-化'는 생산성이 제일 높은 한자 접미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는 주로 단어 내부의 문법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파생어 'X+-化'의 외부 문법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다루어지지 못한 듯하다. 단어의 외부 문법에 관한 연구는 파생어 'X+-化'의 외부 형태론, 즉 파생어 'X+-化'를 단어 구성요소로 삼는 단어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현대 한국어에서 특정 한자어의 의미와 문법과 관한 연구로는 기존 논의 가운데 칼리나(2011), 윗밍(2011), 오호(2016) 등을 들 수 있다. 칼리나(2011)에서는 한자어 '別'의 의미와 문법, 윗밍(2011)에서는 한자어 '生'의 의미와 용법, 오호(2016)에서는 '自+X'와 '本+X'의 문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본고는 이들의 연구 방법과 접근 방향을 참고하여 'X+化'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3. 논의의 구성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전개된다.

제2장에서는 'X+化' 구성을 가진 단어들의 의미와 문법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자 '化'의 의미와 용법을 통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다. 또한 한자 '化'가 한자 문화권인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어원에 따라 의미와 용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2자어 'X+化'의 의미와 문법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한자 '化'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바탕으로 2자어 'X+化'의 공시적인 의미를 검토해 본다. 다자어가 보이는 서술성이라는 특성에 비교하여 2자어 'X+化'도 서술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한 그들의 내부 의미 관계, 즉 'X'와 '化'의 의미 관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2자어 'X+化'에 대한 문법적 접근으로, 우선 한문 문법의 관점에 입각하여 해당 단어의 내부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특징을 논의한다. 이중 한문 문법 체계에서 어근접미 구성으로 보이는 2자어 'X+化', 예컨대 '녹화(綠

化)'와 같은 단어들을 한국어 문법 체계에서 단일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를 규명한다.

제4장에서는 다자어 'X+化'의 의미와 문법을 살펴본다. 먼저 접미사 '-化'의 의미, 또는 어근 'X'에 대한 접미사 '-化'의 의미 제약, 어근 'X'의 의미가 파생어 'X+-化'에 반영되는 정도 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파생어 'X+-化'의 내부·외부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내부 문법적 특징으로는 어근 'X'의 어원 제약, 어근 'X'의 내부 구조에 대해 논해 본다. 외부 문법적 특징으로는 주로 단어 형성 요소로서의 'X+化'가 어떤 단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5장은 결론으로,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2. 한자 '化'의 의미

'X+化' 구성으로 된 단어들의 의미와 문법을 살펴보기 전에 '化'의 의미와 용법부터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의 검토를 바탕으로 어휘부에 등재된 수많은 'X+化'들을 다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국어사전에서 한자어 '化'의 뜻풀이를 살펴보자.

(1) 《표준》

1. 천지자연이 만물을 생육(生育)하는 작용.
2. 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진양(晉陽), 나주(羅州) 등이 현존한다.
3. '화하다03'의 어근.
   화하다 ① 【…으로】 어떤 현상이나 상태로 바뀌다. ② 【…에】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게 되다.
4.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렇게 만들거나 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2) 이희승(1982)의 《국어대사전》

1. ①천지자연이 만물을 생육(生育)하는 작용. ②화학(化學)
2. 성(姓)의 하나.
3. 「접사」 어떤 명사 아래에 붙어, 그렇게 만들거나 됨을 나타내는 말.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化'는 현대 한국어에서 여러 가지 개별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이다. 그러나 '化'가 2자어 'X+化'의 제2요소로 사용될 때의 의미는 사전에 명확하게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한국어에서 대부분의 2자어 'X+化'가 하나의 덩어리로 굳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제2요소인 '化'가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化'의 공시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통시적인 의미 분화, 특히 한문에서 한자 '化'가 보이는 변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1. 한자 ‘化’의 기원적인 의미

우선 ‘化’의 기원적인 의미부터 살펴보자. 중국의 가장 오래된 사전인《說文解字》에서[8] ‘化’는 “化, 教行也。(화, 교행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가장 기원적이라 할 만한 ‘化’의 의미는 ‘教行(교행)’, 즉 ‘教化實行(교화실행)’과 같은 뜻을 가졌다고 파악된다.《說文解字註》에서는 ‘教行(교행)’에 대해 “教行者,移風易俗之義”라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化’의 기원적인 의미는 “교화(教化)를 하는 것(教化實行)”이고, 다시 풀어 제시하면 “낡은 풍속·습관을 고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移風易俗)”이라 할 수 있다.

(3) 가. 君子如欲化民成俗, 其必由學乎。《禮記·學記》
: 군자가 백성을 교화시켜 좋은 풍속을 이루려 한다면, 반드시 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 化外之民 《唐律疏义·名例》
: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의 백성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문에서 한자는 1자로도 뜻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고전 중국어에서 ‘化’는 혼자서도 “教化”의 뜻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의미가 오늘날 한국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주로 ‘X+化’ 구성의 단어이지만, ‘化’의 의미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X+化’ 구성뿐만 아니라 ‘化+X’ 구성의 단어도 모두 제시해 보이고자 한다.

(4) 가. 교화(教化), 감화(感化), 풍화(風化), 순화(醇化)
나. 화민(化民),[9] 화속(化俗),[10] 화타(化他)[11]

8)《说文解字》는 후한 때 허신(许愼)이 지은 사전이다. ‘说文(설문)’은 상형문자를 설명한 것이고, ‘解字(해자)’는 결합된 글자를 분해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전은 상형문자가 무엇을 그린 것인지를 설명하고, 결합된 글자는 그 구성요소가 어떤 글자들인지를 분해하여 보여준다.
9) “백성을 교화함.”

(4가)의 ‘X+化’ 구성인 ‘교화(敎化)’, ‘감화(感化)’, ‘풍화(風化),’ ‘순화(醇化)’의 뜻풀이를 아래 (5)를 통해 살펴보면, 이들은 공유하고 있는 의미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교화(敎化)”의 의미 자질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의 제2요소인 ‘化’가 동일하게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가. 교화(敎化): 가르침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감. 또는 그렇게 변하게 함.
나. 감화(感化): 좋은 영향을 받아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함. 또는 그렇게 변하게 함.
≒염화02(染化)「1」 ・화감(化感).
다. 풍화(風化): 교육이나 정치의 힘으로 풍습을 잘 교화하는 일.
라. 순화(醇化): 정성 어린 가르침으로 감화(感化)함. 또는 그렇게 변하게 함.

예컨대 (5다)의 ‘풍화(風化)’는 “교육이나 정치의 힘으로 풍습을 잘 교화(敎化)하는 일”을 뜻하는데, 제2요소인 ‘化’는 이 중에 “교화(敎化)하는 일”을 뜻한다. 이와 달리 (5나) ‘감화(感化)’의 뜻풀이에서는 “교화(敎化)”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 내용 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감화(感化)’의 뜻풀이 중에 “좋은 영향을 받음”이라는 의미는 “교화”의 “가르치고 이끌기”와 의미가 유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바람직하게 변화함”도 마찬가지로 “교화”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과 유사한 의미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화(感化)’는 [+생각이나 감정, +교화(敎化)]라는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고, 제2요소인 ‘化’가 이 때 “교화” 의미로 쓰인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化’의 갑골문 자형[12]은 다음의 (6)과 같다.

---

10) “속세의 사람들을 교화함.”
11) “남을 교화함.”
12) 갑골문 전자 사전(http://jiaguwen.shufami.com/)를 참조.

(6)

(6)에서 알 수 있듯이, ‘化’는 사물의 의미를 글자 그대로 베낀 전형적인 상형(象形)문자이다. 이 자형의 좌우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왼쪽의 ‘亻(人)’은 바로 선 사람이고, 오른쪽의 ‘匕’는 거꾸로 선 사람 인(人)자이다. 따라서 ‘化’의 본의인 “교화”가 ‘人’과 ‘匕’의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人’은 ‘사람’을 뜻한다. ‘匕’는 《說文解字》에서 “變也。從到人。”로 풀이되었다. 이는 “‘匕’는 거꾸로 선 사람 ‘人’자이기 때문에(從到人)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變也)”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化’의 의미는 “사람과 관련된 변화”를 표의하며 그것은 바로 “교화”라는 뜻이라 추측할 수 있다.

2.2. 한자 ‘化’의 중심적인 의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化’의 기원적인 의미는 “교화(教化)”이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변화(變化)”의 의미, 즉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이라는 의미가 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공시적으로는 이 의미가 ‘化’의 중심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13] 예컨대 ‘화(化)하다’, ‘전화(轉化)’, ‘화장(化粧)’ 등의 단어에서는 ‘化’가 어근으로서 “변화”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공업화(工業化)’ 등 파생어에서 접미사인 ‘-化’가 표현하는 주변적인 의미도 중심적인 의미 “변화”에서 파생된 것이라 짐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化’의 기원적인 의미를“변화”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꽤 많은 편이다.

13) 윤평현(2009)에서는 다의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고 하고, 중심적 의미가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범위가 확정되어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고 하였다.

그러나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化’의 기원적인 의미는 “교화(敎化)”, 즉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이고, 원래 “변화(變化)”의 의미를 담당하고 표현하는 한자는 거꾸로 선 사람인 ‘匕’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說文段注》에서 “化, 變也。凡變匕當作匕。教化當做化。今變匕字盡作化。化行而匕廢矣。(‘化’는 변(變)이다. 변화는 ‘匕’이고 교화는 ‘化’이다. 지금은 글자 ‘匕’가 ‘化’로 쓰인다. ‘化’가 사용되기 때문에 ‘匕’가 폐지되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즉 원래 ‘匕’는 “변화”를 뜻하고 ‘化’는 “교화”를 뜻하였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化’는 “변화”의 뜻을 표현하게 되고 ‘匕’가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정리하여 다시 말하면, 공시적인 측면에서 ‘化’의 중심적인 의미는 “변화”이며, 이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의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化’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원적인 의미는 “변화”가 아니라 “교화(教化)”이다. 즉 “변화”라는 의미는 나중에 획득되어 점차 확장되어 쓰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김완진(1973)에서 제시한 어휘 소멸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이 논의에 따르면 동의성(同義性)과 동음성(同音性)이라는 요인은 어휘 소멸(消滅)·생성(生成)·변개(變改)에 관여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리하여 ‘化’의 의미 확장이나 ‘匕’의 소멸은 이 두 가지 요인과 모두 관련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匕’는 ‘化’의 성부(聲符) 역할을 수행하여 그 기본적인 뜻과 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匕’와 ‘化’는 같은 발음과 유사한 의미, 즉 동의성과 동음성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이 둘은 경쟁 관계에 있게 된다. 결국 등가(等價)인 두 형태소는 공존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라 거의 동일한 의미·형식을 가진 이 둘 중 하나는 소멸하게 된다. 여기서 ‘匕’의 의미인 “변화”는 ‘化’가 가진 하나의 의미 자질로서 포함될 수 있지만 ‘化’의 의미인 “교화”는 ‘匕’에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의미 범위가 보다 넓은 ‘化’가 살아남고 ‘匕’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가나다 한자사전》 과 《8282 한자사전》 등의 사전에서 ‘化’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인 ‘人’과 거꾸로 된 사람인 ‘匕’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그의 자원(字源)을 “모습이나 형태를 바꾼다는 뜻”이라고 풀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단어의 기원적인 의미와 중심적인 의미를 혼동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化’의 기원적인 의미인 “교화”와 중심적인 의미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변화”에서 확장된 ‘化’의 주변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2.3. 한자 ‘化’의 주변적인 의미

우선 《표준》에서 제시한 ‘化’의 첫 번째 뜻풀이 “천지자연이 만물을 생육(生育)하는 작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뜻은 고전 중국어에서 유래되며, 고전 중국어 어원사전인《辞源》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조화(造化)”로 요약하고 있다. ‘化’의 파생적인 의미인 “천지자연이 만물을 생육하는 작용”, 즉 “조화”의 의미가 반영된 단어는 아래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가. 부화(孵化)[14], 생화(生化)[15], 이화(二化)[16], 일화(一化)[17]
나. 화육(化育)[18], 화성(化成)[19], 화공(化工)[20]

한편《국어대사전》에 의하면 ‘化’는 “화학(化學), 자연 과학의 한 분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중심적인 의미인 “변화(變化)”에서 파생된 뜻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화학(化學)’은 “변화(變化)의 과학”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우리말어원사전》에 따르면 ‘화학(化學)’의 어원은 영어 ‘chemistry’로 제시되고 있다. 중국어 외래어 사전인 《汉语外来词词典》에서도 ‘화학(化學)’은 일본에서 유래된 외래어로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화학(化學)’은 일본에서 근대 서양의 어휘를 번역할 때 사용된 한자어이고, 나중에 한국어에서 받아

14) “동물의 알 속에서 새끼가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옴. 또는 그렇게 되게 함.”
15) “태어나고 자라는 일. 또는 생성하고 변화하는 일.”
16) “곤충 따위가 한 해 동안 두 번 알을 까서 나옴.”
17) “곤충 따위가 한 해 동안 한 번만 알을 까서 나옴.”
18) “천지자연의 이치로 만물을 만들어 기름.”
19) “길러서 자라게 함.”
20) “=천공, 하늘의 조화로 자연히 이루어진 묘한 재주.”

들인 신문명어(新文明語)라는 것을[21]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化'의 "화학"이라는 의미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갖게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어 중에서도 특히 화학(化學) 분야에서 아주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8) 가. 이화(理化)
나. 화공(化工)[22], 화합(化合), 화비(化肥), 화생방(化生放)[23]

이외에 '化'가 "그렇게 만들거나 됨"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史紅改(2009)에 따르면, 이러한 의미는 중국 명청(明淸) 시대부터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고전 중국어의 예문을 통해 설명된 바 있다.

(9) 가. 質美者明得盡, 渣滓便渾化, 與天地同體。 《朱子語類》
: 바탕이 뛰어난 자가 온전히 명철해져 욕심의 찌꺼기가 다 녹아 없어지면 천지와 한 몸이 된다.
나. 其顯化異類。 《禪林僧寶傳》
: 그가 이류(異類)로 현현(顯現)하게 변하다.
다. 若說有奇緣, 如何心事終虛化。 《紅樓夢》
: 기묘한 연분이 있다면 어찌 이렇듯 마음의 염원이 허사가 될까.

史紅改(2009)는 (9)에서 제시한 예문을 통해서 고전 중국어의 'X+化' 구성인 '渾化', '顯化', '虛化'의 '化'가 "변화"의 의미뿐만 아니라 "X처럼 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X+化'에서 'X'는 "변화의 방향이나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9)에서 제시한 고전 중국어 '化'의 용법과 의미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굉장히 빈

21) '신문명어(新文明語)'는 박영섭(1995)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일본에서 근대 서양 문물의 어휘를 한자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22) "『공업』'화학 공업'을 줄여 이르는 말."
23) "화학, 생물학, 방사능을 아울러 이르는 말."

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 예 (10)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0) 가. 녹화(綠化), 강화(强化), 미화(美化)
나. 공업화(工業化), 간소화(簡素化), 식민지화(植民地化)

(10)에서 제시한 단어들은 '化'가 "그렇게 만들거나 됨"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化'가 항상 단어의 구성에서 제2요소로 나타난다.[24] 선행요소인 '녹(綠), 강(强), 미(美), 공업(工業), 간소(簡素), 식민지(植民地)'는 모두 의미상 "그렇게" 자리에 들어가는 "변화의 방향, 결과"에 해당한다. 그러나 (10)과 같은 단어들은 (9)에서 제시한 고전 중국어 'X+化' 구성의 '化'와 의미가 같다고 하더라도, 고전 중국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9)에서 제시한 고전 중국어의 'X+化'들은[25] 한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반면 (10)에서 제시한 현대 한국어의 '녹화(綠化), 강화(强化), 미화(美化)' 등은 오히려 고전 중국어에서 쓰이지 않거나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이다. (10)의 예들은 대응하는 일본어 단어의 의미와 완전히 일치하거나 중심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본어 한자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1> 현대 한국어 의미가 일본어 의미와 일치하거나 중심의미가 동일한 'X+化'

	일본어 의미	한국어 의미
녹화(綠化)	木を植えて緑をふやすこと。	산이나 들 따위에 나무나 화초를 심어 푸르게 함.
강화(强化)	強くすること。 さらに強くすること	「1」 세력이나 힘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함. 「2」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임.
격화(激化)	以前よりもはげしくなること。げっか。	격렬하게 됨.

24) '화농(化膿)'의 '化'가 "그렇게 됨"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화농(化膿)'은 "고름이 아닌 것을 고름으로 변화시키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름이 생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의 '化'는 "그렇게 됨"의 뜻으로 쓰이는 것보다 "생기다"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조화"라는 의미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한문 문법으로 형성된 단어들이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에서 매우 불규칙적이고 고립적으로 존재하여 본고에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도록 한다.

25) 실제로 (9)에서 제시한 'X+化' 구조의 표현들은 단어라고 하기 힘들고 구(句)로 보아야 한다.

심화(深化)	物事の程度が、深まること。また、深めること。	정도나 경지가 점점 깊어짐. 또는 깊어지게 함.
미화(美化)	「1」美しくすること。	아름답게 꾸밈.
	「2」実際以上に美しいと認識したり表現したりすること。美しいものとして見ること。 「3」りっぱに教化すること。	

‘미화(美化)’의 경우에는 고대 중국어에서도 사용되었지만, 현대 한국어의 ‘미화(美化)’와 전혀 다른 의미인 “아름다운 교화(敎化)”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미화(美化)’와 같은 단어들이 고대 중국어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일본어의 의미와 완전 일치하거나 그 중심의미가 일치하는 경우로 보고 일본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판단한다.

또 중국어 외래어 사전인 《漢語外來詞詞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대 중국어 ‘綠化’, ‘强化’, ‘美化’ 등의 단어도 일본어에서 유래된 단어들임을 알 수 있다. 王力 등 많은 언어학자들이 ‘化’의 “그렇게 만들거나 됨”이라는 용법은 일본 번역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化’의 “그렇게 만들거나 됨”이라는 의미도 “화학(化學)”과 같이 일본 신문명어(新文明語)에서 기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9)에서 제시한 “그렇게 만들거나 됨”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고전 중국어의 ‘X+化’는 (10)에 제시한 ‘X+化’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는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파생어 ‘X+化’가 명청(明淸) 시대부터 생겼다고 하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파생어 ‘X+化’들의 용법이 고전 중국어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굳이 이들의 유사점을 말하자면 (9)의 고전 중국어 ‘X+化’가 파생어 ‘X+化’를 만드는 데에 기본적인 패턴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26]

지금까지 통시적인 연구 등을 바탕으로 ‘化’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오늘날 한국 한자어에서 쓰이고 있는 ‘化’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1)의 ①, ②, ③의 의미는 고전 중국어에서 비롯되었고 ④, ⑤

26) 史紅改(2009)에서는 고전 중국어의 ‘X+化’에서 ‘X’는 동사성, 명사성, 상태성 요소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X+化’ 구조는 현대 중국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파생어 ‘X+化’ 구조의 형성하는 데에 패턴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의 의미는 일본어에서 유래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1) ① [변화(變化)],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
② [교화(教化)],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
③ [조화(造化)], 천지자연이 만물을 생육(生育)하는 작용.
④ [화학(化學)], 자연 과학의 한 분야.
⑤ 그렇게 만들거나 됨.

3. 2자어 'X+化'

3.1. 의미적 특징

3.1.1. 'X+化'의 서술성

김창섭(2001:188)에서는 2자어의 경우 '化'가 비서술성 명사[예: 문화(文化), 왕화(王化), 조화(造化)]도 형성하고, 서술성 명사[예: 개화(開化), 둔화(鈍化), 순화(醇化), 진화(進化)]도 형성하는 데에 반해, 3자어[예: 민주화(民主化), 인간화(人間化), 세계화(世界化)]의 경우 반드시 일정한 성격의 서술성 명사만을 만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X+化' 구성의 서술성이 단지 'X'의 글자 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도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2자어 'X+化'의 서술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다, -되다, -시키다'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표2> 2자어 'X+化'와 '-하다/되다/시키다'의 결합 여부

'-하다' 등과의 결합 여부 / '化'의 의미	모두 결합할 수 있음 ●	일부분만 결합 가능 ◐	모두 결합할 수 없음 ○
① 변화(變化)	변화(變化), 융화(融化), 용화(熔化), 둔화(鈍化), 소화(消化), 전화(轉化), 퇴화(退化), 진화(進化)…… + -하다/-되다/-시키다		
② 교화(教化)	교화(敎化), 감화(感化), 개화(開化)[27]…… + -하다/-되다/-시키다	덕화(德化) + -하다/*-되다/*-시키다 ; 혜화(惠化) + -하다/*-되다/*-시키다	문화(文化) + *-하다/*-되다/*-시키다 ; 왕화(王化) + *-하다/*-되다/*-시키다 ; 풍화(風化) + *-하다

			/*-되다/*-시키다[28]
③ 조화(造化)	부화(孵化) + -하다/-되다/-시키다	일화(一化) + 하다/*-되다/*-시키다 ; 이화(二化) + 하다/*-되다/*-시키다	조화(造化) + *-하다/*-되다/*-시키다 ; 생화(生化) + *-하다/*-되다/*-시키다
④ 화학(化學)			이화(理化) + *-하다/*-되다/*-시키다
⑤ 그렇게 만들거나 됨.	동화(同化), 약화(弱化), 분화(分化), 악화(惡化), 심화(深化), 녹화(綠化), 정화(淨化), 산화(酸化), 석화(石化), 기화(氣化), 격화(激化), 경화(硬化), 적화(赤化), 순화(純化), 노화(老化), 둔화(鈍化), 미화(美化), 탄화(炭化)…… + -하다/-되다/-시키다		

위의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자어 'X+化' 중에는 '化'가 ④번 의미인 "화학"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많지 않다. 수가 가장 많은 것은 '化'가 ⑤번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대부분의 2자어 'X+化'는 서술성 명사로서 '-하다, -되다, -시키다'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말뭉치에서 '德化(덕화)'는 '-시키다'와 결합한 예를 찾지 못하였고, '혜화(惠化), 일화(一化), 이화(二化)'는 '-되다, -시키다'와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서술성을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기능동사 일부와 결합하기 어색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불완전 서술성명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 외에는 '조화(造化)', '생화(生化)', '문화(文化)', '왕화(王化)', '풍화(風化)', '이화(理化)'는 '-하다', '-되다', '-시키다'의 어느 것과도 결합하지 못하는 비서술성 명사들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불완전 서술성 명사와, '이화(理化)'를 제외한 비서술성

27) "사람의 지혜가 열려 새로운 사상, 문물, 제도 따위를 가지게 됨."
28) "교육이나 정치의 힘으로 풍습을 잘 교화하는 일."

명사 'X+化'는 모두 고전 중국어에서 유래한 단어들이다. 또한 이들은 제2요소인 '化'가 주로 ②번 의미인 "교화(教化),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과 ③번 의미인 "조화(造化), 천지자연이 만물을 생육(生育)하는 작용"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고 고전 중국어에서 모두 서술성을 지니는 동사구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 동작성의 의미가 어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발전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회 발전에 따라 언어 표현의 필요성이나 표현 방식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②번 의미인 "교화(教化)"와 ③번 의미인 "조화(造化)"를 표현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떨어지고 표현하는 방식도 '언어 경제성 원칙'에 따라 저절로 간략해졌으리라 짐작된다. 이에 따라 '-하다' 등 기능동사와 결합하는 용법보다 명사적인 용법만으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X+化' 구성의 서술성은 단지 글자 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化'의 의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化'의 ②번 의미 "교화(教化)"와 ③번 의미 "조화(造化)"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용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기능동사와 결합하기 어려워졌으리라 짐작된다.

3.1.2. X와 '化'의 의미 관계

이 절에서는 2자어 'X+化'의 의미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그 구성요소 간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3> 2자어 'X+化'에서 X와 '化'의 의미 관계

X와 化의 의미 관계	X가 '化의 방법, 수단'	X가 '化의 방향, 결과'	동의 (X≒化)	기타
실례	(A) 소화(消化), 융화(融化), 용화(熔化), 전화(轉化), 진화(進化), 퇴화(退化)	녹화(綠化), 격화(激化), 경화(硬化), 기화(氣化), 노화(老化), 동화(同化), 둔화(鈍化), 미화(美化), 분화(分化), 산화(酸化), 석화(石化), 순화(純	변화(變化), 조화(造化), 생화(生化), 부화	일화(一化), 이화(二化), 개화(開化)
	(B) 교화(敎化), 감화			

	(感化), 왕화(王化), 혜화(惠化), 귀화(歸化), 문화(文化), 훈화(訓化), 덕화(德化)	化), 심화(深化), 악화(惡化), 약화(弱化), 적화(赤化), 정화(淨化), 탄화(炭化)	(孵化),	

2자어 'X+化'에서 X가 '化의 방법, 수단'이라는 의미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化'는 (A)에서는 ①번 의미인 "변화,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으로, (B)에서는 ②번 의미인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으로 사용되는 점이 특이하다. 예를 들어 '소화(消化), 융화(融化), 용화(熔化), 전화(轉化), 진화(進化), 퇴화(退化)' 등 단어들의 제1요소인 '소(消)-', '융(融)-', '용(熔)-', '전(轉)-', '진(進)-', '퇴(退)-'는 동태성 형태소로서 각각 "사라지는", "녹는", "열을 가하여 녹는", "도는", "나아가는", "물러나는" 등의 방식이나 수단을 의미한다. 이때 '化'는 "변화" 즉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을 뜻한다. 따라서 이 단어들은 모두 "어떤 방식이나 수단을 통해서 변화(變化)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화(敎化)', '감화(感化)', '왕화(王化)'는 각각 "교육하는", "감동하게 되는", "임금의 덕행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X가 '化의 방법, 수단'이라는 의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문화(文化)'라는 단어는 특별한 설명을 보탤 필요가 있다. 《연세》에 의하면 '문화(文化)'는 주로 "한 사회의 예술, 문학, 도덕, 종교 따위의 정신적 활동의 전통", "정신적 가치와 아름다움에 관계되는 사회적 분야나 활동", 또는 "어떤 분야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흐름이나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으로 사용되는 '문화(文化)'는 의미론적으로 어휘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어원적으로 보면 '문화(文化)'의 '문(文)'은 '化의 방법,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12) 가. 文化不改, 然後加誅. 《說苑·指武》
: 문치하여 교화되지 못하면 주살한다.
나. 영화 문화, 음식 문화

(12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전 중국어에서 '文化'는 '문치교화(文治教化)' 즉 "문치하여 교화(教化)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崔玉珍(2004)에서는 '文'을 수단으로, '化'를 목적으로 해석하였다. 즉 고전 중국어의 '文化'는 '불미(不美), 불선(不善), 불문(不文)'(아름답지 않고 착하지 않고 학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치교화(文治教化)'하여 '미(美), 선(善), 문(文)'으로 변화하는 동태적인 과정을 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쓰이는 (12나)의 '文化'는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정태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12나)의 '文化'는 동태적 과정인 '문치교화(文治教化)'의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할 수 있다. '文化'는 이러한 의미론적인 어휘화를 겪고 나서 결국 공시적으로는 내부 의미 관계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게 된 단어인 것이다.

'化'가 ⑤ "그렇게 만들거나 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X와 '化'의 의미관계는 모두 X가 '化의 결과,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화(硬化)'에서 '경(硬)-'은 "단단하다"라는 뜻으로 변화(變化)의 '방향'을 표현한다. 또한 '기화(氣化)'에서 '기(氣)-'는 "기체"라는 뜻으로 변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파생어인 '기계화(機械化)' 등의 내부 의미 관계와 동일하다. '기계화(機械化)'도 '기계'가 변화의 '결과'를 표현하고 "기계로 만들거나 됨"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 문법적 특징

3.2.1. X와 '化'의 문법 관계

이 절에서는 'X+化'의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문법적 특징이란 한문 문법의 측면에서 2자어 'X+化'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다. 신창순(1969), 김창섭(1999) 등의 논의에서는 한자어의 문법적인 특징이 자세히 다루어진 바가 있다. 그 중 신창순(1969)에서는 한국어의 2자 한자어의 구성 방식을 대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13) 가. 병렬에 의한 것
: 가치(價値), 검사(檢査), 간단(簡單)
나. 통사적 관계의 두 요소가 숙어로 굳어진 것
① 수식의 관계: 대가(大家), 미인(美人), 소인(小人)
② 보족(補足)의 관계: 결혼(結婚), 고별(告別), 입학(入學)
③ 주술의 관계: 일몰(日沒), 지진(地震), 연소(年少)
다. 파생에 의한 것
: 남자(男子), 상자(箱子)

김창섭(1999:4-5)에 따르면 한국어 2자 한자어의 내부 구성을 한문 문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14) 수식 구성: 老人, 流水, 光線, 市內, 急行, 獨立, 過大
병렬 구성: 土地, 人民, 往來, 敎育, 善惡, 優良, 明白
어근접미 구성: 椅子, 菓子, 拍子, 街頭, 念頭, 斷乎, 確乎
주어+술어 구성: 家貧, 日沒, 月初, 夜深, 年少, 海溢, 氣絶
술어+목적어 구성: 讀書, 開會, 避難, 作文, 建國, 斷念, 牧畜
술어+보어 구성: 入學, 登山, 歸家, 有名, 無數, 親韓, 對韓

본고는 이를 바탕으로 2자어 'X+化'를 대상으로 그 내부 문법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15) 가. 보족(補足) 구성
: 감화(感化), 교화(敎化), 귀화(歸化), 문화(文化), 부화(孵化), 소화(消化), 융화(融化), 전화(轉化), 진화(進化), 퇴화(退化)
나. 병렬 구성
: 변화(變化), 조화(造化), 이화(理化)
다. 술어+목적어 구성
: 개화(開化)[1]

라. 어근접미 구성

: 강화(强化), 격화(激化), 경화(硬化), 기화(氣化), 노화(老化), 녹화(綠化), 동화(同化), 둔화(鈍化), 미화(美化), 분화(分化), 산화(酸化), 순화(純化), 심화(深化), 악화(惡化), 약화(弱化), 유화(類化), 적화(赤化), 정화(淨化), 탄화(炭化)

2자어 'X+化'는 크게 보족 구성, 병렬 구성, 어근접미 구성, 술목 구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접미 구성의 'X+化'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분석 대상의 절반 이상을 넘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성은 보족 구성이다. 그러나 병렬 구성과 술목 구성의 'X+化'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비율이 아주 낮다. 한편 주술 구성으로 된 'X+化'가 사전에 존재하기는 하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잘 사용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일개월화'(日改月化)는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변화함"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개(日改)'와 '월화(月化)'는 모두 주어+서술어 구성이라 볼 수 있다.

보족 구성으로 된 2자어 'X+化'는 X가 '化의 방식이나 수단'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부화(孵化)'의 '부(孵)'는 "알 속에서 새끼가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온다"라는 의미로 쓰이며 '수단'을 나타난다. '化'는 ③번 의미인 "조화(造化)" 즉 천지자연이 만물을 생육(生育)하는 작용을 뜻하여 '결과'를 표현한다. 따라서 '부화'의 의미는 "알 속에서 새끼가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오는 식으로 생육하는 것"이고, 그 구성은 보족 구성으로 볼 수 있다.

2자어 'X+化'의 제1요소인 'X'와 제2요소인 '化'가 동일한 문법 역할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병렬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5나)에 제시된 '변화(變化)'의 경우에는, 《說文段注》의 "化, 變也。(화는 변이다.)"라는 설명에 따라 '변(變)'과 '화(化)'는 동일한 의미이므로 병렬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화(造化)'는 전술하였듯이 '조(造)'와 '화(化)'가 각각 "창조"와 "생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create"라는 의미를 표현하므로 역시 병렬관계이다. '이화(理化)'는 '이화학(理化學)'의 줄임말이고 이는 물리학과 화학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므로 병렬관계라고 분석할 수 있다.

(15다)의 술목 구성은 분석 자료 중 '개화(開化)$_1$' 하나 밖에 확인되지 않았다. 현대 한국어에서 '개화(開化)$_2$'는 보통 "사람의 지혜가 열려 새로운 사상, 문물, 제도 따위를 가지게 됨"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 기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고전 중국어에서 '개(開)'가 "열다"를 의미하고 '화(化)'가 "교화(敎化)"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화(開化)$_1$'는 "교화를 실시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한문 문법에 의하면 '개화(開化)$_1$'의 문법적 구성은 술어+목적어 구성이다. 한편 술목 구성의 2자어 'X+化'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아주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고전 중국어에서는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施化(교화를 실시하다)', '秉化(교화를 부여받다)' 등이 있다.

보족 구성, 병렬 구성, 술목 구성은 한문 문법의 일부이지만 접미 구성은 한국 한자어 문법에도 있는 구성이다. (15라)에 제시된 2자어 'X+化'는 모두 어근접미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의 '化'는 분명히 "X처럼 만들거나 됨"이라는 일관된 접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자어 'X+化'와 같이 고정된 위치, 즉 제2요소 자리에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① "변화(變化),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 ② "교화(教化),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 ③ "조화(造化), 천지자연이 만물을 생육(生育)하는 작용", ④ "화학(化學)"의 의미로 사용되는 '化'는 상대적으로 위치를 이동하기가 자유롭다.

(16) ① [변화(變化)]: 화심[29](化心), 전화(轉化)
② [교화(教化)]: 화덕(化德)≒덕화(德化)[30],
감화(感化)≒화감(化感),
화타(化他)≒타화
③ [조화(造化)]: 화육(化育), 이화(二化)
④ [화학(化學)]: 화비(化肥), 이화(理化)
⑤ [그렇게 만들거나 됨]: 화*[31], 녹화(綠化) 등

---

29) "마음을 변하게 함."
30) '≒' 기호로 해당 단어들이 동의어임을 보여 주고 있다.
31) '화*'는 '化'가 "그렇게 만들거나 됨"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제1요소 자리에 나타나지 못

(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化'는 각각 ①~④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한자어의 제1요소 자리에 나타나기도 하고 제2요소로 나타나기도 한다. 심지어 "교화(教化)"의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제1요소와 제2요소의 위치가 바뀌게 되어도 단어의 의미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化'가 "변화(變化)", "교화(教化)", "조화(造化)", "화학(化學)"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단어 내부 위치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한자어 어근적인 특성을 보여 준다.

한편 이와 달리 ⑤의 "그렇게 만들거나 됨"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化'가 위치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렇게 만들거나 됨"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化'가 다른 의미로 쓰이는 '化'와 달리, 접사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노명희(2005:68)에서는 "한자가 원래 한문 구조에서는 다양한 의미 기능과 통사 기능을 갖는 특성이 있지만 이들이 접두한자어나 접미한자어로 쓰이면서 위치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자연히 하나의 의미와 기능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2.2. 접미 구성인 2자어의 문법

앞서 제시한 접미 구성의 2자어 'X+化', 예컨대 '녹화(綠化)' 같은 단어들의 '化'가 가지고 있는 접사적 특성은 많은 중국 언어학자들[胡松柏(1982), 史紅改(2009), 陳曉明(2005), 崔玉珍(2004)]에게는 인정을 받고 있다. 《現代漢語詞典》에서도 '녹화'류의 '化'는 접사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한자라도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학자들의 경우 대체로 이를 일종의 어근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더구나 한국어에서는 '위치 이동 제약'이라는 기준과 의미 기준만을 적용해서는 2자 한자어의 구성요소가 어근인지 접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2자어 '녹화'류의 '化'는 형태론적 자격이 접사인지 일종의 어근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化'의 형태론적 자격을 접미사로 처리하느냐 어근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2자어 '녹화'류가 파생어인지 아닌지도 달라질 수 있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자어 ‘녹화(綠化)’류 ‘化’의 문법적 자격에 대하여 본고는 이를 어근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2자어 ‘녹화’류의 ‘化’가 한국어에서 분명히 접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근거를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2.2.1. 상대 빈도를 이용한 접근과 그 한계

우선 형태론적으로는 2자어 ‘녹화’류가 파생어라기보다는 단일어로 인식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상대 빈도라는 개념을 통해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빈도’란 Hay(2001)에서 제시한 ‘파생어 대(對) 어기’의 빈도 비율을 뜻하는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상대 빈도} = \frac{\text{파생어 빈도}}{\text{어기 빈도}}$$

이에 대하여 이광호(2007b)는 “어기의 빈도가 파생어의 빈도보다 높다는 것은 어휘부 안에서 어기의 표상이 파생어의 표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해당 파생어가 어기와 접사로 분석되어 인식·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한편 “파생어의 빈도가 어기의 빈도보다 높다는 것은 파생어의 표상이 어기의 표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해당 파생어가 어기와 접사로 분석되어 인식·처리되기보다는 단일어처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상대 빈도의 수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단어를 단일어처럼 처리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단어가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고 파생어로 인식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미화(美化)’의 사용 빈도가 ‘미(美)’의 사용 빈도보다 높으면 화자가 ‘미화(美化)’를 단일어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미화(美化)’의 사용 빈도가 ‘미(美)’의 사용 빈도보다 낮으면 파생어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15라)에서 제시한 접미

구성인 ‘X+化’의 상대 빈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형태론적 자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현대 한국어의 접미 구성인 ‘X+化’들의 상대 빈도를 산출하는 데에 공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 조사 대상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계획 기초자료 구축분과에서 구축한 형태 분석 코퍼스로 한정된다. 본고의 조사 대상 코퍼스로는 문어 코퍼스와 구어 코퍼스가 모두 포함된다. 먼저 어근접미 구성인 ‘X+化’의 빈도와 X의 빈도를 각각 확보한 후 그들의 상대 빈도를 산출하겠다.

(17) 가. 자립적 어근+化
: 기화(氣化), 동화(同化), 미화(美化), 산화(酸化), 탄화(炭化), 순화(純化), 악화(惡化), 적화(赤化)
나. 비자립적 어근+化
: 격화(激化), 경화(硬化), 노화(老化), 석화(石化), 둔화(鈍化), 심화(深化), 약화(弱化), 녹화(綠化), 분화(分化), 정화(淨化)

(17가)는 각각 자립성을 지닌 어근에 ‘化’가 결합하는 접미 구성 ‘X+化’ 단어들이다. 이들의 제1요소 X는 모두 현대 한국어에서 자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다음 (18)의 예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8) 가. 기(氣): **기**가 통하다.
나. 동(同): **동** 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음.
다. 미(美): 한국의 의상에는 분명히 한국적인 **미**가 있는 것 같다.
라. 산(酸): **산**은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하여 수소 이온을 만드는 물질.
마. 탄(炭): **탄**을 캐다.
바. 순(純): ‘미르’는 용을 일컫는 **순** 우리말.
사. 악(惡): 나는 선을 한다는 것이 도리어 **악**이 되는 것이었다.
아. 적(赤): 십장생의 색채는 주로 녹, 백, 청, **적**, 갈, 황, 자, 흑을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4>은 (17가)의 상대빈도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표4> '자립적 어근+化'의 상대 빈도

분석 대상	빈도	자립적 어근	빈도	상대빈도
미화(美化)	87	미(美)	649	0.1341
탄화(炭化)	13	탄(炭)	25	0.5200
적화(赤化)	11	적(赤)	15	0.7333
기화(氣化)	25	기(氣)	23	**1.0870**
순화(純化)	41	순(純)	37	**1.1081**
악화(惡化)	467	악(惡)	197	**2.3706**
산화(酸化)	76	산(酸)	29	**2.6207**
동화(同化)	22	동(同)	6	**3.6667**

위의 <표4>에서 제시하였듯이, 접미 구성인 2자어 'X+化'에서 자립성을 지닌 어근에 '化'가 결합하는 예들은 상대 빈도가 각각 다르게 산출된다. 이 중 '기화(氣化), 동화(同化), 산화(酸化), 순화(純化), 악화(惡化)'는 상대 빈도가 1보다 높게 산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은 현대 한국어에서 각각의 어근인 '기(氣), 동(同), 산(酸), 순(純), 악(惡)'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화자의 기억에 더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화자들은 대체로 이들을 파생어라기보다는 단일어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미화(美化), 탄화(炭化), 적화(赤化)'는 상대 빈도가 1보다 낮게 산출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화자에게 자립적 어근인 '미(美), 적(赤), 탄(炭)'을 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예외적으로 파생어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미화(美化)'의 경우에는 자립적인 어근인 '미(美)'가 상당한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빈도만을 고려할 때에는 그 파생어로서의 자격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립적인 어근에 '化'가 결합한 (17가의) 단어들과 다르게, (17나)의 예들은 모두 비자립적 어근에 '化'가 결합한 접미 구성의 2자어들이다. 이들의 어근['경(硬)-', '노(老)-', '둔(鈍)-', '심(深)-', '약(弱)-', '녹(綠)-']은 한국어에서 자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빈도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어근의 빈도는 분모로서 0이 되면 이론적으로 상대 빈도를 산출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어근의 빈도가 그 파생어의 빈도보다 낮으면 상대 빈도는 1보다 높게

산출된다는 원리로 이루어졌 있고, 그렇다면 어근의 빈도가 무한히 낮아지는 경우에는 상대 빈도도 무한히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7나)의 예들은 모두 상대 빈도가 극히 높은 단어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 빈도를 이용하여 분석할 때 (17나)의 예들은 단일어처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따랐을 때 적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다자어 'X+化'의 X가 비자립적인 어근일 때 다자어 'X+化'도 단일어로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19) 간소화(簡素化), 명료화(明瞭化), 첨예화(尖銳化), 복잡화(複雜化), 왜소화(矮小化), 유연화(柔軟化)

(19)는 노명희(2005:221)에서 제시한 비자립적인 어근에 '化'가 결합한 다자어 'X+化'의 예 일부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경우 X가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2자어 'X+化'는 단일어로 처리된다고 하면, (19)의 예들도 '化'와 결합한 X가 모두 자립성이 없으므로 단일어로 처리되어야 할 처지에 놓인다. 그렇지만 이는 단어의 내부 구조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직관과는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결국은 어근의 출현 빈도나 자립성에만 의지해서는 한국어 단어들의 형태론적 자격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근 활성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17나)와 (19)의 예들을 구별하여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3.2.2.2. 어근 활성도를 이용한 접근

(17나)와 (19)의 예들을 비교해 보면, 이들은 동일하게 자립성이 없는 어근인 X에 '化'가 결합한 'X+化' 구성으로 된 단어들이지만, 어근 X들이 한국어의 문법 체계에서 각각 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고영근(1993:33-4)에서는 고유어와 마찬가지로 한자어에서도 단어

구성소와 단어 형성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단어 구성에 생산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형성소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구성소이다. 이에 따라 (17나)의 X와 (19)의 X를 각각 단어 형성에의 참여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단어 구성소와 단어 형성소로 구별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노명희(2005:31)의 경우도 동일한 입장으로, 한자어 어근을 크게 활성 어근과 비활성 어근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활성 어근이란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지만 단어 형성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수식 기능을 지니면서 구 구성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한편 비활성 어근은 한국어 문법 체계 내에서 일정한 기능 단위가 되지 못하여 일반 한국어 화자들이 단어 형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 어근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을 구별하였다. 노명희(2005:33-47)에서는 활성 어근과 비활성 어근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각각 다음과 같은 특성을 제시하였다.

(20) 활성 어근
① 파생 접사 '-하다'와 결합할 수 있다.
② 명사 앞에서 수식 기능을 할 수 있다.
③ 접미사 '-적(的)'과 결합할 수 있다.
④ 합성어나 구의 구성에 활발히 참여한다.

비활성 어근
① '-하다' 등 고유어 파생 접사와 결합할 수 없다.
② 특수조사에 의한 어근 분리가 불가능하다.

본고는 위에서 제시한 비활성 어근과 활성 어근의 특성을 바탕으로, (17나)의 X와 (19) X가 형태론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해명해 보고자 한다. 다만 본고는 한자어 접미사 '-적(的)'과의 결합 여부를 어근 'X'가 활성 어근인지 비활성 어근인지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광호(2007a)의 논의에 따르면, '-化'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한자 접미사이다. 그러므로 한자 어근의 분리 가능성은 '-的'과의 결합 여부보다는 '-化'와의 결합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구 구성 여부도 본고에서의 활성 어근과 비활성 어근의 구별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구 구성 기능이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어근이어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고 비자립적인 어근 X가 활성 어근인지 비활성 어근인지를 구분하는 데에는 무용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활성 어근과 비활성 어근의 판단 기준을 주로 고유어 접미사 '-하다, -히'와의 결합 여부, 그리고 합성어 형성의 참여 여부로 설정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활성 어근과 비활성 어근의 구별 기준

	'-하다'와 결합	'-히'와 결합	합성어의 형성
활성 어근	○	○	○
비활성 어근	×	×	×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보면 (19)에서 제시한 다자어 'X+化'의 X는 비자립적인 어근이라고 해도 활성 어근으로서 단어 형성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소(簡素)-, 명료(明瞭)-, 첨예(尖銳)-, 복잡(複雜)-, 왜소(矮小)-, 유연(柔軟)-' 등 비자립적인 어근은 고유어 접미사 '-하다'나 '-히'와 결합할 수도 있고 합성어의 형성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글 각각을 예시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활성 어근 X의 특성

어근 X	'-하다'	-히	합성어의 형성
간소(簡素)-	간소하다	간소히	간소주의(簡素主義)
명료(明瞭)-	명료하다	명료히	간단명료(簡單明瞭)
첨예(尖銳)-	첨예하다	첨예히	첨예분자(尖銳分子)
복잡(複雜)-	복잡하다	복잡히	복잡골절(複雜骨折)
왜소(矮小)-	왜소하다	-	왜소심장(矮小心臟)
유연(柔軟)-	유연하다	유연히	유연가공(柔軟加工)

이와 달리 (17나)는 비활성 어근에 '化'가 결합하는 'X+化'들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7나)에서 'X+化'의 X는 고유어 접미사 '-하다'와의 결합이 불가능하고,

가능한 경우라도 '-히'와는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합성어의 형성에도 참여하기 어려운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활성 어근'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비활성 어근 X의 특성

어근 X	'-하다'	-히	합성어의 형성
격(激)-	격하다	-	-
경(硬)-	-	-	-
노(老)-	-	-	-
둔(鈍)-	둔하다	-	-
심(深)-	-	-	-
약(弱)-	-	-	-
석(石)-	-	-	-
녹(綠)-	-	-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7나)와 (19)는 모두 자립성이 없는 어근에 '化'가 결합한 'X+化' 구조의 단어들이지만 그들의 형태론적인 분리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X가 활성 어근일 때는 접미사 '化'와의 결합 관계가 한국어 화자에게는 더 쉽게 인식될 수 있고 X와 '化'도 상대적으로 더 쉽게 분리될 수 있다. 이와 달리 X가 한국어 단어 형성에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하는 비활성 어근일 때는 '化'와의 결합 관계가 한국어 화자에게 명확하게 인식되지 못한다. 따라서 비자립적인 어근에 '化'가 결합하는 '녹화(綠化)'류 'X+化'들은 다자어 'X+化'보다 분리 가능성이 낮은 단일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한국어 문법 체계와 중국어 문법 체계에서 '녹화(綠化)'류 'X+化'가 다르게 분석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중국어 문법에서는 1자의 한자가 각각 하나의 자립적인 단어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녹화(綠化)'류 'X+化'가 '다자어 'X+化'와 별다른 구별 없이 파생어로 분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한문 문법에서 벗어나 한국어 문법 체계 내에서 '녹화(綠化)'류 'X+化'의 X는 일반적으로 자립성이 없고, 자립성이 있더라도 단어 형성에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비활성 어근이기 때문에, '녹화(綠化)'류 'X+化'는 한국어 화자에게 분리 가능성이

낮은, 덩어리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한국어에서는 '녹화(綠化)'류 'X+化'를 더 이상 분석하지 않고 단일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3.2.2.3. 의미론적 어휘화를 이용한 접근

'의미론적 어휘화'란 송철의(1992:43)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어근의 의미와 파생 접사의 의미로부터 파생어 전체의 의미가 예측될 수 없을 때 그 파생어가 겪게 되는 현상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논의에 의하면 어휘화라는 개념은 통시적 변화의 흔적을 공시적 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여 2자어 'X+化'가 파생어로 인식되지 못하는 의미론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산화(酸化), 적화(赤化), 탄화(炭化), 석화(石化), 분화(分化), 노화(老化), 암화(暗化)

(21)에서 제시한 'X+化'들은 의미론적 어휘화를 겪은 파생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어근 X에 접미사 '化'가 결합하면 'X+化'는 "X처럼 만들거나 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21)의 예들은 이러한 패턴이 적용되지 못한다. 예컨대 '산화(酸化)'는 "산(酸)을 만들거나 그렇게 됨"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원자, 분자, 이온 따위가 전자를 잃는 일"을 의미한다. 이들은 X와 '化'의 공시적인 의미가 'X+化'에서 반영되어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 즉 단어가 공시적인 결합 관계에 의하여 그 의미를 형성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구성요소의 의미에만 의존하여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론적인 어휘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표8> 'X+化'의 의미론적 어휘화

X	X의 의미	'X+化'	'X+化'의 의미
적(赤)	적색.	적화(赤化)	공산주의에 물듦. 또는 그렇게 되게 함.
탄(炭)	석탄(石炭). 연탄(煉炭).	탄화(炭化)	「1」 유기 화합물이 열분해나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탄소로 변함. 또는 그런 일.

			「2」 어떤 물질이 탄소와 화합함. 또는 그런 일.
석(石)	「1」 =경쇠 「3」. 「2」 =석부05(石部).	석화(石化)	생물이 땅속에 묻혀 있는 동안에, 규산이나 탄산칼슘 따위가 각 조직 사이에 침투하여 화석이 되는 일.
노(老)	'늙은' 또는 '나이가 많은'	노화(老化)	「1」 『생물』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 「2」 『의학』 사람의 노년기에 나타나는 노인성 변화. 세포에서는 소모 색소(消耗色素)의 침착(沈着), 소지방구(小脂肪球)의 축적, 세포의 용적 감소, 핵(核)의 위축 따위가 일어난다. 「3」 『화학』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합물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는 현상. 고무를 공기 속에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산화하여 굳어지는 현상 따위를 이른다.
분(分)	전체를 몇으로 나눈 부분.	분화(分化)	「1」 단순하거나 등질인 것에서 복잡하거나 이질인 것으로 변함. 「2」 『생물』 생물체나 세포의 구조와 기능 따위가 특수화되는 현상. 「3」 『심리』 발달 심리학에서, 각 부분이 독특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 쪽으로 세분되는 과정. 「4」 『심리』 조건 형성에서, 강화가 있는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고 강화가 없는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일.
암(暗)	-	암화(暗化)	나방이나 모기 따위의 곤충류에서, 야생형보다 멜라닌을 몸 겉면에 더 많이 포함하는 현상. 돌연변이에 의하여 생기는 것도 있고 외부 생활에 의하여 생기는 것도 있다. ≒흑화.

따라서 (21)에서 제시한 'X+化'들의 의미와 같이, 화자가 X와 '化'의 의미를 통하

여 예측할 수 없을 때 즉 합성성 원리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도출되지 못할 때에는 X와 '化'의 파생 관계를 현대 한국어 화자로서는 인식하기가 쉽지는 않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외래어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어휘화가 일어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미론적인 원인 때문에 일부 2자어 'X+化'는 단일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미론적 어휘화는 2자어 'X+化'들이 한국어에서 단일어화를 겪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형태론적 접근 방식인 상대 빈도, 어근 활성도의 측정, 의미론적 접근 방식인 어휘화 개념의 도입을 통하여 '녹화(綠化)'류 'X+化'의 형태론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녹화(綠化)'류 'X+化'는 대개 자립성을 지니지만 사용 빈도가 낮은 어근, 혹은 자립성이 없고 비활성적인 1자 어근에 '化'가 결합하는 단어들이다. 게다가 일부분 '녹화(綠化)'류 'X+化'가 의미론적 어휘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X와 '化'의 결합 관계를 한국어 화자로서는 인식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앞서 논의한 세 가지 원인에 의해 '녹화(綠化)'류 'X+化' 한자어들은 한국어 문법에서 파생어라기보다는 굳어진 단일어로 간주한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Haspelmath & Sims(2015)에서 제시한 어휘 저장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과 긴밀한 관련이 있을 듯하다.

<표9> 어휘 저장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요인	영향의 방향
단어형의 상대적 출현 빈도	높은 빈도 → 단어형 저장
분석 가능성	낮은 분석 가능성 → 단어형 저장
이형태 교체	어기에 많은 영향을 미침 → 단어형 저장

<표9>는 어휘부에 무엇이 등재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Haspelmath&Sims(2015)에서 제시한 세 가지이다. 첫째, 단어형의 상대적 출현 빈도에 대한 고려는 3.2.2.1.에서 제시한 첫 번째 접근 방식인 상대 빈도의 도입과 대응된다. 둘째, 분석 가능성은 3.2.2.2.에서 제시한 한자어 어근의 활성도에 의해 검토되었다. 셋째, 이형태의 교체에 관해서는 3.2.2.3에서 보인 어휘화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보인다.

이형태의 교체는 어기가 파생 접사와 결합할 때 형식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편 본고에서 언급한 의미론적 어휘화 현상은 X에 '化'가 결합하여 X가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고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이다. 이들은 접미사 '化'가 X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녹화(綠化)'류 'X+化'의 지위는 화자의 심리어휘부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개개인의 심리적인 지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녹화(綠化)'류 'X+化'의 지위를 반드시 단일어로 보아야 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한국어 화자에게는 단일어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2자어 'X+化' 구성의 단어들 중에는 단일어인지 파생어인지 위의 형태론적 근거와 의미론적 근거에만 의존해서는 구별하기 어려운 예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2) 자화(磁化) = 자기화(磁氣化)　　고화(固化) = 고체화(固體化)
적화(赤化) = 적색화(赤色化)　　환화(環化) = 환식화(環式化)
각화(角化) = 각질화(角質化)　　목화(木化) = 목질화(木質化)
기화(機化) = 기계화(機械化)　　백화(白化) = 황백화(黃白化)
불화(弗化) = 플루오린화(fluorine化)　　액화(液化) = 액체화(液體化)
옥화(沃化) = 아이오딘화(iodine化)　　감화(鹼化) = 비누화(－－化)

(22)에서 제시한 예들은《표준》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는 2자어 'X+化'와 다자어 'X+化'를 짝지은 것이다. 등호 좌우의 단어들은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쓰이며 동일한 'X+化' 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각각을 단일어와 파생어로 분석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자어 'X+化'의 형태론적 자격이 다자어 'X+化'와의 관계에 의해 유연성(有緣性)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액화(液化)'가 화자에게 '액체화(液體化)'가 줄어든 말인 것처럼 처리된다면, 두 단어 간의 유연성은 높은 것이다. 이때 화자가 2자어 'X+化'와 다자어 'X+化'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유연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2자어 'X+化'를 다자어 'X+化'와 같이 파생어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액화(液化)'도 액체화(液體化)'처럼 파생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Bybee(1995b/2007: 17)에서는 단어들이 어휘부 내에서 맺는 상호 관련을 통해 화자가 각 단어의 형태론적 구조를 파악한다고 하였다. 즉 동일한 의미와 기능을 실현하는 형태가 여러 단어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단어들의 형태론적 관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다(안소진 2014: 71의 재인용).

이에 따르면, '액화(液化)'도 '액체화(液體化)'와의 관련성을 통하여 화자가 그 단어의 구성요소 간의 관계가 어근접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연상, 기억' 등 심리적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 화자마다 머릿속에 단어를 저장하는 방식, 인식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심리어휘부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녹화(綠化)'류 'X+化'가 단일어인지 파생어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장 전체에서 한국어의 2자어 'X+化'가 단일어로 취급되고 있다는 결론은 형태론적 사실과 의미론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내린 것이다. 즉 모든 한국 화자가 2자어 'X+化'의 형태 구조를 더 이상 분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론 어휘부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다. 언어 자료를 형태·의미론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문법 차원의 것이고 머릿속의 체계는 심리적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두 체계는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문법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심리적 차원의 연구보다 합리적인 견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3.3. 소결

이상의 논의를 통해 2자어 'X+化'를 의미적 특징과 문법적 특징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표11> 2자어 'X+化'의 분류

	의미적 특징			문법적 특징		예
	'化'의 의미	X와 '化'의 의미 관계	서술성[32]	X와 '化'의 문법 관계	어원	
가.	변화,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	수단, 방법 기타	●	보족 구성, 병렬 구성 등	고전 중국어	변화(變化)
나.	교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		● ◐ ○			교화(敎化)
다.	조화, 천지자연이 만물을 생육(生育)하는 작용.	동의, 기타	● ◐ ○			조화(造化)
라.	그렇게 만들거나 됨.	방향, 결과	●	접미 구성	일본어	녹화(綠化)

(23) 가. '변화(變化)'류

변화(變化), 소화(消化), 융화(融化), 용화(熔化), 전화(轉化), 만화(萬化), 진화(進化), 퇴화(退化)

나. '녹화(綠化)'류

격화(激化), 경화(硬化), 기화(氣化), 노화(老化), 녹화(綠化), 동화(同化), 둔화(鈍化), 미화(美化), 분화(分化), 산화(酸化), 석화(石化), 순화(純化), 심화(深化), 악화(惡化), 약화(弱化), 적화(赤化), 정화(淨化), 탄화(炭化)

다. '교화(敎化)'류

교화(敎化), 감화(感化), 개화(開化), 귀화(歸化), 문화(文化), 훈화(訓化), 풍화(風化), 왕화(王化), 혜화(惠化)

라. '조화(造化)'류

조화(造化), 생화(生化), 부화(孵化), 일화(一化), 이화(二化)

첫째는 (23가)에서 제시한 '변화(變化)'류 'X+化'들이다. 이들은 제2요소 '化'가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X는 주로 '化의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의미 관계를 보인다. 이 '변화'류 'X+化'들은 서술성 명사로서

32) ●: '-하다, -되다, -시키다'와 모두 결합할 수 있음, ◐'-하다, -되다, -시키다'의 일부와만 결합할 수 있음, ○: '-하다, -되다, -시키다'와 모두 결합할 수 없음.

‘-하다, -되다, -시키다’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고전 중국어에서 유래하였으며 X와 ‘化’의 문법적 관계는 한문 문법의 측면에서 수식 구성, 병렬 구성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는 (23나)에서 제시한 ‘교화(敎化)’류 ‘X+化’들이다. 이들의 제2요소 ‘化’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X는 주로 ‘化의 수단, 방법’을 나타난다. ‘교화’류 ‘X+化’는 서술성 명사, 비서술성 명사, 불완전 서술성 명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법적 특징은 (가)의 ‘변화’류 ‘X+化’들과 유사하다.

셋째는 (23다)에서 제시한 ‘조화(造化)’류 ‘X+化’들이다. 이들의 후행요소 ‘化’는 “천지자연이 만물을 생육(生育)하는 작용”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X는 ‘化’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예: 생화(生化), 부화(孵化)]. 서술성의 측면에서 보면 ‘조화’류의 ‘X+化’ 역시 ‘교화’류 ‘X+化’와 같이 서술성 명사뿐만 아니라 비서술성 명사, 불완전 서술성 명사도 있다. 문법적 특징은 ‘변화’류, ‘교화’류 ‘X+化’들과 유사하다.

넷째는 ‘化’가 “그렇게 만들거나 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23라)의 ‘녹화(綠化)’류 ‘X+化’들이다. 이때 X는 주로 ‘化의 방향이나 결과’를 의미한다. ‘녹화’류 ‘X+化’들은 모두 ‘-하다, -되다, -시키다’와 결합할 수 있는 서술성 명사이다. ‘변화’류, ‘교화’류 ‘조화’류 ‘X+化’들과 달리, 고전 중국어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일본어에서 유래된 접미 구성의 한자어들이다. 상대 빈도, 어근 활성도, 의미의 어휘화 등의 세 가지 접근 방식으로 분석해 보면, 이들은 현대 한국어에서 파생어보다 단일어로 취급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4. 다자어 'X+化'

4.1. 의미적 특징

4.1.1. 접미사 '-化'의 의미

한국어 사전들에 제시된 접미사 '-化'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24) 가.《표준》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렇게 만들거나 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나.《연세》
: 앞의 명사가 나타내는 어떤 상태로 되거나 만드는 것을 나타냄.

접미사 '-化'에 대하여 언급한 몇몇 선행 연구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5) 가. 최현배(1971:672)
: 그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
나. 정민영(1994:88)
: 선행어기처럼 된다.
다. 노명희(2005)
: 일반적으로 서술성이 없는 명사 어기에 결합하여 그 명사에 서술성을 부여한다.

위에서 제시한 접미사 '-化'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한국어대사전》등 대부분 한국어 사전에서 기술하고 있는 의미로서, 접미사 '-化'를 "그렇게 만들거나 됨"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그렇게'는

대체로 “선행 명사처럼”이라는 의미로서 학자에 따라 선행 명사의 “성질”, 혹은 “상태” 등으로 해석해 왔다. 한편 노명희(2005: 217)에서는 접미사 ‘-化’가 단어 형성에 참여할 때 보이는 의미적인 특징을 염두에 두어, 접미사 ‘-化’가 일반적으로 서술성이 없는 명사 어기에 결합하여 그 명사에 서술성을 부여한다는 특징을 설명하였다.

아래의 (26)은 노명희(2015: 217)에서 제시한 예이다.

(26) 가. 세계화(世界化), 규범화(規範化), 기계화(機械化), 현실화(現實化), 민간화(民間化)
나. *세계하다, *규범하다, *기계하다, *현실하다, *민간하다
다. 세계화하다, 규범화하다, 기계화하다, 현실화하다, 민간화하다
라. 세계화되자, 규범화되다, 기계화되다, 현실화되다, 민간화되다

(26가)의 파생어 ‘X+化’의 어근 X는 ‘-하다/되다’와 결합하지 못하는 비서술성 어근인데, 접미사 ‘-化’와 결합한 후에는 (26다, 라)에서 제시한 것처럼 ‘-하다/되다’와 결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접미사 ‘-化’를 서술성 접사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접미사의 의미 기능을 기술하는 메타언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접미사의 메타언어를 설정할 때는 접미사뿐만 아니라 그와 결합하는 어근, 그리고 그에 의해 형성된 파생어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메타언어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접미사 ‘-化’가 가지는 “(일반적으로) 그와 결합하는 어근에게 서술성을 부여해 준다”는 의미 기능에 대해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다 보편적인 ‘化’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우리는 통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세》에 등재된 ‘X+化’ 구성의 파생어들을 더 살펴보겠다. 《연세》에 등재된 ‘X+化’ 구성의 파생어는 총 13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동작성·상태성이 있는 서술성 어근에 접미사 ‘-化’가 결합한 단어는 54개가 있고, 서술성이 없는 어근에 접미사 ‘-化’가

결합한 단어는 80개가 있다. 이들의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어근 X의 서술성에 따른 파생어 'X+化' 의 분류

서술성 어근(동작성, 상태성)+'-化'	비서술성 어근 + '-化'
가속화(加速化), 간소화(簡素化), 개방화(開放化), 고도화(高度化), 고립화(孤立化), 고정화(固定化), 고착화(固着化), 궁핍화(窮乏化), 극대화(極大化), 극소화(極小化), 기사화(記事化), 다양화(多樣化), 단순화(單純化), 단일화(單一化), 독재화(獨裁化), 독점화(獨占化), 동일화(同一化), 동질화(同質化), 무력화(無力化), 문명화(文明化), 법제화(法制化), 보편화(普遍化), 부실화(不實化), 분권화(分權化), 분업화(分業化), 불법화(不法化), 사유화(私有化), 상징화(象徵化), 생활화(生活化), 세분화(細分化), 실용화(實用化), 안정화(安定化), 의식화(意識化), 의인화(擬人化), 전문화(專門化), 입법화(立法化), 절대화(絶對化), 정당화(正當化), 조직화(組織化), 좌경화(左傾化), 중립화(中立化), 집권화(集權化), 집중화(集中化), 차별화(差別化), 첨예화(尖銳化), 추상화(抽象化), 토착화(土着化), 특수화(特殊化), 평준화(平準化), 합리화(合理化), 합법화(合法化), 형상화(形象化), 황폐화(荒廢化), 획일화(劃一化),	개념화(槪念化), 개별화(個別化), 객관화(客觀化), 계열화(系列化), 공산화(共産化), 공식화(公式化), 공업화(工業化), 과학화(科學化), 구상화(具象化), 구조화(構造化), 구체화(具體化), 국산화(國産化), 국유화(國有化), 국제화(國際化), 규격화(規格化), 극단화(極端化), 근대화(近代化), 기계화(機械化), 기업화(企業化), 내면화(內面化), 노골화(露骨化), 능률화(能率化), 다극화(多極化), 다변화(多邊化), 다원화(多元化), 대량화(大量化), 대상화(對象化), 대중화(大衆化), 대형화(大型化), 도구화(道具化), 도시화(都市化), 민영화(民營化), 민주화(民主化), 백지화(白紙化), 범주화(範疇化), 본격화(本格化), 사회화(社會化), 산성화(酸性化), 산업화(産業化), 상품화(商品化), 서구화(西歐化), 서양화(西洋化), 세계화(世界化), 세속화(世俗化), 소설화(小說化), 습관화(習慣化), 습성화(習性化), 시각화(視覺化), 신격화(神格化), 양극화(兩極化), 양성화(陽性化), 영화화(映畵化), 우상화(偶像化), 유형화(類型化), 의무화(義務化), 이론화(理論化), 이상화(理想化), 전산화(電算化), 일반화(一般化), 일상화(日常化), 일원화(一元化), 자동화(自動化), 자유화(自由化), 장기화(長期化), 정보화(情報化), 정상화(正常化), 정형화(定型化), 제도화(制度化), 집단화(集團化), 체계화(體系化), 체질화(體質化), 초토화(焦土化), 표면화(表面化), 표준화(標準化), 현대화(現代化), 현실화(現實化), 형식화(形式化), 활성화(活性化), 활자화(活字化), 효율화(效率化)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히 통계를 내 보면, 접미사 '-化'가 자신과 결합하는

어근에 서술성을 부여해 주는 경우는 전체 표제어의 59.7%에 지나지 않는다. 《연세》에는 주로 사용 빈도가 높은 파생어들만 등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통계적 사실은 접미사 '-化'의 의미 기능을 "서술성 부여"라고 하는 것이 다소 일반성이 결여된 기술임을 확인시켜 준다. 즉 접미사 '-化'가 그 선행 요소에 서술성을 부여한다고 하기도 어렵고, 일반적으로 선행 요소 X가 서술성이 없다고 하기도 어렵다. 요컨대 서술성이라는 것은 파생어 'X+化'가 가진 의미적 특징이지만, 접미사 '-化'의 의미 기능으로 기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서술성 접사'라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접미사 '-化'를 떠올리기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박재연(2011)에서는 연결어미의 메타언어를 선정하는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선정된 연결어미의 메타언어는 역방향 점검법을 이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미사의 메타언어도 이와 마찬가지로 역방향 점검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메타언어를 들으면 곧장 해당 접미사가 직관적으로 떠오르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술성 접사'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직관적으로 '-化'를 호출해 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접미사의 메타언어를 설정하는 기준에 일관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접미사의 메타언어는 문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의미적 기준을 바탕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접미사의 체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선행연구에서 접미사 '-的', '-性'은 일반적으로 '명사성 접미사'라고 불려 왔다. 이것은 접미사의 명칭을 그 파생된 단어의 문법 범주에 따라 설정한 것이다. 이와 달리 접미사 '-化'를 '서술성 접사'로 설정하는 기준은 의미적 기준에 의한 것이다. 접미사의 경우에는 메타언어의 설정 기준을 문법적 특성으로 통일하여 정하고, 접미사 '-的', '-性', '-化'를 모두 '명사성 접미사'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접미사뿐만 아니라 접두사도 포함하였을 때에는, 즉 접사 전반의 메타언어 설정 기준을 마련하려면 의미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접미사 '-化'의 의미는 대부분 기존 사전에서의 뜻풀이 그대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접미사 '-化'의 의미는 《표준》 등 사전에서는 "그렇게 만들거나 됨"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 "그렇게 만들거나 됨"이라는 뜻풀이 중 '그렇게'라는 표현은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 '그렇게'라는 표현을 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파생어 'X+化'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① 선행 요소인 X를 만들거나 X가 됨

(27) 이론화(理論化), 개념화(槪念化), 제도화(制度化), 계열화(系列化), 기사화(記事化), 대상화(對象化), 명문화(明文化), 상품화(商品化), 우상화(偶像化), 고체화(固體化)

위 (27)의 파생어 'X+化'에서 접미사 '-化'는 "X를 만들거나 X가 됨"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대상화(對象化)'는 "(어떤 사물을) 인식의 대상으로 만듦"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28) 대통령에 대한 우상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의 예문에서 '우상화(偶像化)'의 논항은 논항 표지인 '에 대한'을 통해 '대통령'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 '우상화(偶像化)'는 "대통령이 우상(偶像)이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물론 이들 파생어 'X+化'의 의미는 ①과 아래에 제시될 ②, ③ 중 하나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즉 같은 'X+化'가 ①뿐만 아니라 ②, ③ 등의 의미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체화(固體化)'는 "고체로 변함(①)"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고체의 상태와 성질을 가지게 됨(③)"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후술할 ②, ③의 예들은 이렇게 둘 이상으로 해석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배제하여 제시할 것이다.

② 선행 요소인 X의 상태를 만들거나 그 상태가 됨.

(29) 간소화(簡素化), 표준화(標準化), 고립화(孤立化), 다양화(多樣化), 대형화(大型化), 동일화(同一化), 무력화(無力化), 고도화(高度化)

예를 들면 (29)의 '간소화(簡素化)'는 "간소(簡素)를 만들거나 됨"이라는 뜻이 아니라 "간소한 상태를 만들거나 간소하게 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①의 의미와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③ 선행 요소인 X의 특성·성질을 지니게 만듦.

(30) 객관화(客觀化), 근대화(近代化), 내면화(內面化), 대중적(大衆的), 사회화(社會化), 서구화(西歐化), 서양화(西洋化), 전문화(專門化)

①, ②와 달리 ③에서 제시한 접미사 '-化'의 의미는 선행 요소 X가 가진 "성질, 특성"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면 (30)의 예들에서 '근대화(近代化)'는 '근대(近代)'도 아니고 '근대인 상태'도 아니고 '근대의 특성'을 지니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X+化'가 ②나 ③의 의미, 즉 X의 '상태'가 되거나 X의 '성질'을 지니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파생어 'X+的'과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31) 동질화(同質化) → 동질적(同質的)으로 만들거나 됨.
개성화(個性化) → 개성적(個性的)으로 만들거나 됨.
구상화(具象化) → 구상적(具象的)으로 만들거나 됨.
객관화(客觀化) → 객관적(客觀的)으로 만들거나 됨.
국제화(國際化) → 국제적(國際的)으로 만들거나 됨.
다원화(多元化) → 다원적(多元的)으로 만들거나 됨.
대중화(大衆化) → 대중적(大衆的)으로 만들거나 됨.
독재화(獨裁化) → 독재적(獨裁的)으로 만들거나 됨.

(31)에서 제시하였듯이, ②와 ③의 의미를 나타내는 파생어 'X+化' 중에는 접미사 '-的'을 이용하여 뜻풀이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접미사 '-的'과 접미사 '-化'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적화(知的

化), *시적화(詩的化), *인적화(人的化)' 등이나 '*국제적화(獨裁的化), *개성적화(個性的化)' 등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접미사 '-化'가 접미사 '-的'의 의미, 즉 "그 상태로 되거나, 그런 성격을 띠는"이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②와 ③의 의미를 나타내는 파생어 'X+化'는 접미사 '-的'을 통해 뜻풀이할 수는 있지만, 접미사 '-的'과 접미사 '-化'는 서로 의미 중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 이 둘은 결합하여 사용되지 못한다.

접미사 '-的'뿐만 아니라 접미사 '-性'도 "성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접미사 '-化'와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化'와 결합하여 사용되지는 못한다. 다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2자어 'X+性'은 접미사 '-化'와 결합할 수 있지만, 다자어 'X+性'은 접미사 '-化'와 결합할 수 없다.

(32) 가. 단일어 'X+性' + 접미사 '-化'
: 개성화(個性化), 만성화(慢性化), 산성화(酸性化), 활성화(活性化), 습성화(習性化), 양성화(陽性化), 우성화(優性化), 음성화(陰性化), 이성화(異性化), 중성화(中性化)
나. 파생어 'X+性' + 접미사 '-化'
: *안전성화(安定性化), *간결성화(簡潔性化), *행동성화(行動性化)

(32가)에서 제시한 2자어 'X+性'은 앞에서 언급한 'X+化'와 같이 단일어로 취급되기 때문에 대개의 한국어 화자들은 이때의 '性'을 분리하여 접미사로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性'의 의미도 접사적인 것으로 분별하여 인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어에서 2자 단일어 'X+性'은 접미사 '-化'와 의미 중복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

요컨대 '-化'는 "그렇게 만들거나 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여러 어근과 결합하여 "X를 만들거나 X가 됨", "X의 상태를 만들거나 그렇게 됨", "X의 특성·성질을 지니게 만듦" 등의 의미를 가지는 파생어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접미사 '-的', '-性'과 어느 정도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들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데에는 제약

이 있다.

4.1.2. 어근 X의 의미적 특징

4.1.2.1. 파생어 'X+化'에서 X의 의미 제약

어근 X의 의미 제약이란, 파생어 'X+化'에서 어근 X의 의미에 따라 접미사 '-化'와의 결합이 허용되거나 제약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접미사 '-化'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과 어울리는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과 결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근 X의 의미를 분류하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의미와 관련된 논의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원대성(1985)를 꼽을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상(相)적 특성이라는 개념이 동사,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어의 명사들을 [+구체성], [+정도성], [+부사성], [+추상개념], [+동태성], [+상태성], [+결과성], [+순간성]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명사의 상적 특성에 따른 분류

-동태성				+동태성			
+구체성	+정도성	+부사성	+추상성	+상태성	-상태성		
					+결과성		-결과성
					+순간성	-순간성	
영희 동물 노래 신 가을 밥	바보 부자 천재 병신	앞 뒤 위 아래 옆	이면 개념 자유 명제 명예	곤란 성실 불만 불편 무한	입학 독립 취직 입대	변질 합류 분열 침몰	사람, 희망 소망, 운동 훈련, 바느질 일출, 일몰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한 용어는 원대성(1985)에서 설정한 '동태성'이라는

의미 특성이다. ‘동태성’이라는 의미 특성은 ‘동작성’과 구별해야 하는 개념이다. <표13>에 따르면 ‘동태성’은 ‘상태성’과 ‘비상태성’이 포함되는 의미 특성이기 때문에 앞에서 다루었던 ‘서술성’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대성(1985)에서 제시한 ‘동태성’은 ‘상태성’과 ‘동작성’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분류 방식에 따라 원대성(1985:74)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통해 접미사 ‘-化’가 보이는, 어근 X의 상적 특성과 관련된 제약을 제시하였다.

(33) 가. *바보화, *천치화, *멍청이화, *부자화
나. *앞화, *뒤화, *동쪽화

(33가)에서는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성 명사에, (33나)는 ‘바로, 매우’ 등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부사성 명사에 접미사 ‘-化’가 결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접미사 ‘-化’는 정도성, 부사성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명희(2005: 219)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정도성 명사에 접미사 ‘-化’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34) 가. 고급(高級), 고령(高齡), 고속(高速), 고가(高價), 저질(低質), 저급(低級), 저속(低俗)
나. 매우 고급이다, 아주 고령의 나이, 아주 고속으로 달리다, 매우 고가로 팔다, 꽤 저질이다, 아주 저급의 상품이다, 아주 저속이다.
다. 고급화(高級化), 고령화(高齡化), 고속화(高速化), 고가화(高價化), 저질화(低質化), 저급화(低級化), 저속화(低俗化)

(34가)의 명사들은 (34나)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성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접미사 ‘-化’와 결합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만한 것은 원대성(1985: 74)에서 제시한 정도성 명사는 주로 고유어 명사인데, 이

와 달리 노명희(2005: 219)에서 제시한 명사는 모두 한자어 명사들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접미사 '-化'가 어근 X에 대해 갖는 제약은 의미 제약이 아니라 어원과 관련된 제약일 수 있다는 의심이 가능해진다. 송철의(1992: 108)에 의하면, 파생 접사가 고유어에만 결합하지 못한다면 [-Native]와 같은 추상적 형태자질이 필요할 것이고, 접사의 어근에 대한 제약은 의미론적 제약이 아니라 형태론적 제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대성(1985: 74)에서 제시한 부사성 명사에 접미사 '-化'가 결합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33나)에서 제시한 '앞, 뒤, 동쪽' 등의 부사성 명사들도 모두 고유어 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사성을 지닌 한자어 명사가 접미사 '-化'와 결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한다.

(35) 가. 내면(內面), 미래(未來), 현재(現在), 외부(外部)

나. 그의 행동으로 보아 어떤 변화와 동요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될지를 미리부터 근심할 필요가 없다.
현재 마지막 합격 발표만 남겨 놓고 있다.
외부로 나가는 출구는 두터운 철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다. 학교 환경교육은 일정한 교육적 방향을 가지고 학생들의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내면화를 지향한다.
인터넷은 세계화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미래의 고도 정보화 사회로 이끄는 미래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간이야말로 이 소설의 또 다른 테마가 아닐까 싶게 작가는 기억의 현재화에 매달린다.
인간 의지가 외부화되기 위해서는 이미 거기에 맞서는 세계가 요구된다.

(35가)의 '내면(內面), 미래(未來), 현재(現在), 외부(外部)'는 (35나)에서 볼 수 있듯이 문맥에 따라 부사의 기능도 보일 수 있는 한자어 명사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앞, 뒤, 동쪽'과 같이 부사성을 지니는 명사라고 판단된다. 이들은 (35다)에서 제시한 것처럼 접미사 '-化'와 결합하여 파생어를 만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접미사 '-化'는 부사성 명사이든지, 정도성 명사이든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접미사 '-化'가 어근에 대해 제약되는 이유는 어근의 의미보다는 어원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접미사 '-化'가 한자 접미사로서 고유어보다 한자어와 결합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물론 접미사 '-化'는 한자어뿐만 아니라 외래어와 자유롭게 결합하는 경우도 많지만, 고유어와 결합할 때에는 어떤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굳음화'는 존재하지 않지만 '경직화(硬直化)'는 존재하듯이, 그리고 '*안쪽화'보다 '내면화'를 만드는 것은 더 자연스럽고,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앞화'보다는 '*전방화'를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35다)의 단어들 중 '내면화(內面化)'만 《표준》에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 '미래화(未來化), 현재화(現在化), 외부화(外部化)'는 모두 《우리말샘》에 등재된 신조어들이다. 따라서 접미사 '-化'는 어원에 대한 제약도 갖지만, 부사성 의미 자질과 결합하지 못하는 제약도 통시적 측면에서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현대의 한국어에서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공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접미사 '-化'는 생산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어근의 의미에 대한 특정한 제약을 설정하기가 힘들다. 현재로서는 구체성 어근, 추상 개념의 어근, 정도성 어근, 부사성 어근, 동태성 어근 등은 모두 접미사 '-化'와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태성 명사 중에는 [+동작성]을 나타내는 명사의 경우가 접미사 '-化'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노명희(2005: 220)에서는 접미사 '-化'가 어근의 의미 부류로는 대체로 특별한 제약을 보이지 않으나, [+동작성]을 지니는 어근을 취하는 예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36) *논의화(論議化), *방문화(訪問化), *격려화(激勵化), *분석화(分析化), *대응화(對應化)

(36)은 노명희(2005: 220)에서 제시한 예로, 접미사 '-化'가 [+동작성]을 지니는 어근과는 어울리지 않음을 보여 주는 예들이다. '논의(論議), 방문(訪問), 격려(激勵), 분석(分析), 대응(對應)'은 앞에서 제시한 상적 의미 기준에 적용시켜 보면

모두 [−상태성, −결과성, −순간성] 자질을 갖는 명사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들은 아래 (3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 있다'와 결합할 수 있지만 '−아/어 있다'와는 결합할 수 없다.

(37) 그들이 논의(論議)하고 있다/*논의해 있다.
그 사람이 영국을 방문(訪問)하고 있다/*방문해 있다.
친구를 격려(激勵)하고 있다/*격려해 있다.
성분을 분석(分析)하고 있다/*분석해 있다.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對應)하고 있다/*대응해 있다.

한편 아래 (38가)는 원대성(1985)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상태성, −순간성, −결과성] 자질의 명사들인데, 이들은 모두 (38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접미사 '−化'와 결합할 수 없다.

(38) 가. 희망(希望), 소망(所望), 운동(運動), 수양(修養), 일출(日出), 일몰(日沒)
나. *희망化, *소망化, *운동화(運動化), *수양화(修養化), *일출화(日出化), *일몰화(日沒化)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접미사 '−化'는 주로 [−상태성, −순간성, −결과성]을 나타내는 비결과성 어근들과는 어울리지 못한다는 의미 제약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제약은 아마도 접미사 '−化'가 어근의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근 의미에 [+결과성]을 요구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어근 X의 의미 제약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파생어 'X+化'의 어근인 X의 상적 특성에 따라 파생어 'X+化'를 분류해 보고자 한다.

<표14> 파생어 'X+化'에서 X의 상적 특징

	어근 X의 의미	파생어 'X+化'
가.	−동태성, +구체성	공원화(公園化), 가부장화(家父長化), 가축화(家畜化), 도시화(都市化), 공장화(工場

		化), 병원화(病院化)
나.	−동태성, +정도성	고령화(高齡化), 고속화(高速化), 고가화(高價化), 저질화(低質化)
다.	−동태성, +부사성	내면화(內面化), 미래화(未來化), 현재화(現在化), 외부화(外部化)
라.	−동태성, +추상성	가치화(價値化), 개념화(槪念化), 개성화(個性化), 개혁화(改革化), 객관화(客觀化), 가상화(假想化), 개성화(個性化), 공산화(共産化), 사유화(私有化), 민주주의화(民主主義化)
마.	+동태성, +상태성	견고화(堅固化), 특수화(特殊化), 합리화(合理化),보편화(普遍化), 무력화(無力化), 일반화(一般化), 안정화(安定化)
바.	+동태성, +결과성, +순간성	고정화(固定化), 고착화(固着化), 결정화(結晶化), 좌경화(左傾化), 개방화(開放化)
사.	+동태성, +결과성, −순간성	가속화(加速化), 강조화(強調化), 분극화(分極化), 분업화(分業化), 흥행화(興行化), 공용화(共用化), 공유화(共有化)
아.	+동태성, −결과성	−

4.1.2.2. 어근 X 의미의 반영도

송철의(1992: 69)에서 '어근 X의 의미 반영 정도'는 다의적인 X로부터 파생어가 형성될 때 그 의미 중 어떤 의미가 파생어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하는 문제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어근의 의미 중 기본적인 의미가 우선적으로 파생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절에서는 어근 X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가 파생어 'X+化'의 의미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정말 기본적인 의미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바탕으로 살펴보겠다.

(39) 가. 가속(加速): 속도가 빨라지는 것. 속도를 높이는 것.
나. 가속화(加速化): (어떤 일이 진행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것.

위의 예는 어근 '가속(加速)'의 유일한 의미 또는 기본적인 의미가 파생어 '가속화(加速化)'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경우이다. 어근 X가 다의적이지 않고, 그 유일한 의미 혹은 기본적인 의미가 파생어 'X+化'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파생어 'X+化'의 의미가 항상 규칙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40) 가. 백지(白紙)
「1」 흰 빛깔의 종이.
「2」 아무것도 쓰지 않은 종이.
「3」 (어떤 것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거나 전혀 모르는 상태. 아무 일도 없었던, 이전의 상태.
「4」 ['백지 ~'의 꼴로 쓰이어] 무엇을 써 넣도록 되어 있는 것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문서나 증서 따위.
나. 백지화(白紙化)
「1」 [주로 '백지화 상태/방향…'의 꼴로 쓰이어] (계획되거나 추진되던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

(40)에서 제시하였듯이 다의적인 어근 '백지(白紙)'로부터 파생어 '백지화(白紙化)'가 형성될 때, 어근 '백지(白紙)'의 " 「3」 아무런 지식도 없거나 전혀 모르는 상태. 아무 일도 없었던, 이전의 상태"라는 의미만 '백지화(白紙化)'의 의미와 관련을 맺고 있다. '백지화(白紙化)'도 (39)의 '가속화'와 같이 파생어가 어근의 여러 가지 의미 중 하나와만 파생 관계가 성립되는 예이지만, 그 하나의 의미가 '백지(白紙)'의 기본 의미가 아니라 「3」에 해당하는 주변적이고 파생적인 의미라는 점에서 다르다.

(41) 가. 형식(形式)

「1」 어떤 사물의 구조나 모양을 이루기 위한 일정한 방식.

「2」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나 방법, 양식.

「3」 (내용을 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있는) 방식이나 말.

나. 형식화(形式化)

「1」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

「2」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형식을 고정시키는 것.

(42) 가. 도구(道具)

「1」 어떤 일을 할 때 쓰이는 연장.

「2」 [주로 추상명사 뒤에 쓰이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나. 도구화(道具化)

「1」 (어떤 것을) 도구가 되게 하는 것. 도구로 삼는 것.

위의 두 예 중 '형식화(形式化)'에서 어근 '형식(形式)'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 " 「2」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나 방법, 양식"과 " 「3」 (내용을 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있는) 방식이나 말", 이 두 가지 의미만 파생어 '형식화(形式化)'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제외된 " 「1」 어떤 사물의 구조나 모양을 이루기 위한 일정한 방식"이라는 의미는 파생어 '형식화(形式化)'와 무리하게 관련지으면 아주 어색하게 느껴진다. 다음의 예문 (43)을 통해서도 '형식화(形式化)'가 「1」의 의미보다 「2」, 「3」의 의미와 더 자연스럽게 파생 관계를 맺는 것을 알 수 있다.

(43) 「1」 목조 건축 형식 → *이 건물을 목조 건축 형식화한다.

「2」 사회 교육의 형식 → 사회 교육도 형식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다. → 그는 종교의 형식화를 비판한다.

(42)의 '도구화(道具化)'에서 어근 '도구(道具)'는 " 「1」 어떤 일을 할 때 쓰이는 연장"과 " 「2」 [주로 추상명사 뒤에 쓰이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검토해 보면 파생어 '도구화(道具化)'

는 '도구(道具)'의 두 가지 의미와 모두 파생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4) 「1」 발전(發電) 도구 → 풍력 발동기는 풍력을 도구화하여 바람의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이다.
「2」 언론은 도구로 삼는다. → 언론이 제도적으로 도구화된다.

(43), (44)에서 제시하였듯이, 파생어 '형식화'와 '도구화'는 어근 X의 여러 가지 의미와 파생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예들이다. 이때 '형식화(形式化)'와 같은 경우는 어근 '형식(形式)'의 기본적인 의미보다 주변적인 의미가 훨씬 우선적으로 파생어의 의미에 반영되고 있다.

앞에서 제시된 파생어 'X+化'는 모두 어근 X의 의미와 접미사 '-化'의 의미를 통하여 파생어의 의미를 규칙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예들이다. 그러나 파생어 'X+化'의 의미가 언제나 이와 같이 규칙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합리화(合理化)'를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45) 가. 합리(合理)
「1」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함.
나. 합리화(合理化)
「1」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게 함.
「2」 어떤 일에서 낭비를 없애고 능률을 높이는 것.
「3」 [주로 '자기 ~'의 꼴로 쓰이어] 자기의 잘못을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이유로 옳은 것인 양 꾸미는 것.

'합리화(合理化)'는 어근과 접사의 의미만을 가지고서는 파생어 전체의 의미를 규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파생어 '합리화(合理化)'는 어근 '합리(合理)'의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함"이라는 의미와 파생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어근 의미와 접사 의미만으로는 도출되지 않는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다. (45)에서 제시한 '합리화(合理化)'의 " 「2」 어떤 일에서 낭비를 없애고 능

률을 높이는 것"이라는 의미는 '능률'과 관련되고, " 「3」 자기의 잘못을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이유로 옳은 것인 양 꾸미는 것"이라는 의미는 '심리'와 관련되는데, 모두 어근 '합리(合理)'의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을 보이지 않는다.

송철의(1992: 66)에서는 이와 같이 파생의 의미가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를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지 않는 파생어 의미라고 부르고 있다. 파생어 'X+化' 중에는 이러한 예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원자화(原子化)'는 '현대의 대중 사회 속에서 개인이 고립되는 현상'의 뜻으로 쓰이는데, 어근 '원자(原子)'의 기본적인 의미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지 않는다.

요컨대, 파생어 'X+化'는 어근 X의 의미가 파생어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파생어 'X+化'는 어근 X의 의미 중 어느 한 의미와만 파생 관계를 이룰 수 있는데, 그 의미는 '가속화(加速化)'의 '가속(加速)'과 같이 기본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백지화(白紙化)'의 '백지(白紙)'처럼 주변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 둘째, 파생어 'X+化'가 어근 X의 여러 의미와 파생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의미들 가운데 기본적인 의미와 관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형식화(形式化)'는 어근 '형식(形式)'의 기본적인 의미와는 파생 관계를 가지지 못하지만 나머지 주변적인 의미와 파생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셋째, 파생어 'X+化'가 어근 X의 의미와 대응되지 않는 예외적인 예들이 있을 수도 있다. 예들 들어 '합리화(合理化)'의 의미는 어근 '합리(合理)'의 그 어떤 의미도 반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5> 어근 'X' 의미의 반영 정도

<table>
<tr><th>파생어'X+化'의 규칙성</th><th colspan="2">어근 X 의미의 반영 정도</th><th>예</th></tr>
<tr><td rowspan="2">규칙적
'X+化'</td><td rowspan="2">① 'X'의 한 의미만
'X+化'에 반영</td><td>기본적인
의미만 반영</td><td>가속화(加速化),
개념화(槪念化),
개별화(個別化),</td></tr>
<tr><td>주변적인
의미만 반영</td><td>백지화(白紙化),
공산화(共産化),</td></tr>
</table>

			공동화(空洞化), 거품화(－－化), 경직화(硬直化)
	② ‘X’의 여러 의미가 ‘X+化’에 반영	기본적인 의미 반영	도구화(道具化), 세속화(世俗化), 등식화(等式化)
		주변적인 의미만 반영	형식화(形式化)
불규칙적 ‘X+化’	③ ‘X’의 의미가 ‘X+化’의 의미와 대응하지 못함		합리화(合理化), 원자화(原子化), 재귀화(再歸化)

지금까지 어근 X의 의미가 파생어 ‘X+化’에 반영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파생어 ‘X+化’에 어근 X의 기본적인 의미가 반영되지 않은 예, 즉 ‘백지화(白紙化), 공산화(共産化), 공동화(空洞化), 거품화(－－化), 경직화(硬直化), 형식화’ 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파생어에 포함된 어근의 기본적인 의미와 주변적인 의미를 비교해 보면, 기본적인 의미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의미이고 주변적인 의미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의미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덧붙여 말하면 파생어 ‘X+化’ 중 일부는, 어근 X의 추상적인 의미에 접미사 ‘化’가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어근의 주변적인 의미만 반영하는 ‘X+化’

X	X의 기본적인 의미 (구체적인 의미)	X의 주변적인 의미 (추상적인 의미)	파생어 ‘X+化’
백지화 (白紙化)	닥나무 껍질로 만든 흰빛의 우리나라 종이.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하여 이미 있었던 사실을 없는 것으로 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됨.

		말.	
공산화 (共産化)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소유함.	공산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변화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공동화 (空洞化)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굴.	아무것도 없이 빈 것	마땅히 있어야 할 내용이 없어짐. 또는 속이 텅 비게 됨.
거품화 (--化)	액체가 기체를 머금고 부풀어서 생긴, 속이 빈 방울.	현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생겨 껍데기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떤 현상에 껍데기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가 됨. 또는 지나치게 외형적인 면만이 부각되어 과장됨.
경직화 (硬直化)	몸 따위가 굳어서 뻣뻣하게 됨.	사고방식, 태도, 분위기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여 융통성이 없고 엄격하게 됨.	사고방식, 태도, 분위기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여 융통성이 없고 엄격한 상태로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형식화 (形式化)	사물이 외부로 나타나 보이는 모양.	(내용을 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있는) 방식이나 말. (내용을 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있는) 방식이나 말.	형식으로 나타냄.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형식을 고정시키는 것.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파생어 'X+化'에 나타나는 어근 X의 의미 반영 정도는 단어마다 차이가 보인다. 일반적으로 어근 X의 기본적인 의미가 파생어 'X+化'

에 반영될 수 있지만, 일부는 어근 X의 주변적인 의미만 반영될 수 있다. X의 주변적인 의미만 반영하는 경우는 주로 기본적인 의미가 구체적인 의미인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접미사 '-化'가 특정 부류의 어근인 경우에 구체적인 의미와 어울리지 않고 추상적인 의미와만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문법적 특징

4.2.1. 'X+化'의 내부 문법

이 절에서는 주로 형태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파생어 'X+化'의 내부 문법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형태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파생어 'X+化'의 형성 규칙이 어근 X에 대해 보이는 여러 가지 형태론적 제약을 살펴볼 수 있다. 이 형태론적 제약 중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어근 X의 어원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어근 X의 내부 구조에 대한 것이다.

앞서 파생어 'X+化'의 형성 규칙은 어근 X의 어원에 대한 제약을 가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파생어 'X+化'에 참여하는 접미사 '-化'가 고유어보다 한자어, 외래어와 더 자주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연세》에 수록된 'X+化' 구조로 된 169개의 단어들 중에는 고유어나 외래어 어근으로 형성된 'X+化'가 하나도 없지만, 《표준》에 수록된 'X+化' 구조로 된 817개의 단어들 중 단일어, 합성어로 분류되는 경우와 북한어를 제외하면, 파생어 'X+化'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총 469개이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7> 《표준》에 등재된 'X+化'구조의 단어

'X+化'의 어원	예		수량
북한어	가격계획화(價格計劃化), 단어화(單語化), 분탄가스화(粉炭gas化), 석탄가스화(石炭gas化)		112
표준어	단 일	감화(感化), 소화(消化), 진화(進化), 팽	153

	어	화(膨化), 일화(一化), 회화(誨化), 정화(淨化),	
	합 성 어	약변화(弱變化), 언어문화(言語文化), 얼개화(-開化), 자연정화(自然淨化), 전통문화(傳統文化)	83
	파 생 어	다양화(多樣化), 다원화(多元化), 다양화(多樣化), 다원화(多元化),상품화(商品化), 이성질체화(異性質體化)	469

여기서 파생어 'X+化'는 다시 어근 X의 어원에 따라 하위분류될 수 있다. 고유어 어근에 접미사 '-化'가 결합하는 단어는 3개뿐이며, 외래어 어근과 한자어 어근으로 형성된 'X+化'는 각각 53개, 413개가 등재되어 있다.

<표18> 내부 문법에 의한 파생어 'X+化'의 분류 (《표준》)

어근 X의 어원	예	수량
고유어	단물화, 거품화, 비누화	3
외래어	가스화, 젤화(gel化), 비닐화(vinyl化), 니트로화(nitro化), 네트워크화(network化), 할로겐화(Halogen化) 등	53
한자어	합법화(合法化), 현대화(現代化), 백지화(白紙化), 범주화(範疇化), 안정화(安定化), 안정화(安定化), 합법화(合法化), 현대화(現代化) 등	413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접미사 '-化'가 한자어, 외래어에는 쉽게 결합하지만 고유어 어근에는 잘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도 접미사 '-化'의 높은 생산성 덕분에 최근 들어서는 다소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46)는 신조어가 비교적 많이 수록된 《우리말샘》에서 가져온 것

으로, 고유어 어근 X에 '-化'가 결합된 예들이다.

(46) 가장자리化[33], 무덤化[34], 손가락化[35], 수컷化[36], 암컷化[37], 서울化[38], 수술化[39], 물렁化[40]

또한 아래 (47)에서 제시한 것처럼 고유어 어근에 접미사 '-化'가 결합하는 예들은 2000년 이후의 말뭉치에서, 그중에서도 특히 신문 기사 분야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는 접미사 '-化'가 고유어와 잘 결합하지 못하는 제약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47) 가. 많은 부부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운 열정이 식어 버린 것을 '결혼의 무덤화'로 여기고 좌절하는데 이는 성급한 판단이다.
《국민일보 2002년 12월》

나. 대개의 환경 호르몬이 암컷화를 촉진하는 반면 티비티(TBT)는 고둥 등 조개류의 현저한 수컷화를 부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일보 2006년 2월》

다. 그는 프랑스의 OO가 수도권의 비대화 현상을 빗대어 만든 신조어 서울화는 우리나라 지방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2년 10월》

접미사 '-化'는 외래어 어근에도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는데, 외래어 어근 중 대부분은 영어 어근에 속한다. 그 외에는 독일어 어근, 네덜란드어 어근, 혼종어 어근

33) 염증의 초기 상태에서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백혈구가 혈관의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현상. 백혈구는 염증 부위 조직의 모세 혈관 내벽을 구성하고 있는 혈관 내피세포에 부착되어 축적된다.
34) 어떤 일이나 사물, 상태 따위가 끝남. 또는 그것을 속 깊이 숨기어 감춤.
35) 가락 갈퀴막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합쳐진 가락의 끝부분을 외과적으로 분리하는 수술.
36) 암컷이 수컷으로 바뀜. 또는 그렇게 바꿈.
37) 수컷이 암컷으로 바뀜. 또는 그렇게 바꿈.
38) 서울 지역의 모습을 닮아 가게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39) 꽃에 있는 꽃잎, 꽃받침 등과 같은 여러 기관이 수술로 전환되는 현상.
40) 액체의 작용이나 자가 용해로 조직이 물러지게 되는 것.

과 결합한 예도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의 (48)에서 확인할 수 있다.

(48) 가. 영어 어근 + '-化'
코르크화(cork化), 아말감화(amalgam化), 설폰화(sulfone化), 가스화(gas化), 나이트로화(nitro化), 술폰화(sulfone化)
나. 독일어 어근 + '-化'
요오드화(<독>Jod化), 플루오르화(<독>Fluor化), 요오드화(<독>Jod化), 할로겐화(<독>Halogen化)
다. 네덜란드어 어근 + '-化'
시안화(<네>cyaan化)
라. 혼종어 어근 + '-化'
비스탈린화(非Stalin化), 고압가스화(高壓gas化)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우리는 한국어 접미사 '-化'가 한자어 어근과 외래어 어근에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반면, 고유어 어근에는 잘 붙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고유어 어근에 접미사 '-化'가 붙은 신조어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고유어 어근에 대한 부정적 제약을 덜 받는 쪽으로 지속적인 완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어근 X의 내부 구조도 파생어 'X+化'의 내부 문법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접미사 '-化'와 결합하는 어근 X는 단일 형태소뿐만 아니라 복합어, 심지어는 단어 이상의 단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보겠다.

(49) 가. 금속화(金屬化), 경음화(硬音化), 문제화(問題化), 패스트푸드화(fast food化)
나. [비스탈린]화(非Stalin化), [비신화]화(非神話化), [비물질]화(非物質化), [공개념]화(公槪念化), [고압가스]화(高壓gas化), [범세계]화(汎世界化)
다. [문법적성분]화(文法的成分化)[북], [관광 자원]화(觀光資源化), [개인 공간]화(個人空間化), [고유 명사]화(固有名詞化), [고정 관념]화(固定觀念化)

(49가)의 예들은 접미사 '-化'가 단일 형태소들에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들이다. 물론 이들의 어근 '금속, 경음, 문제, 패스트푸드'는 한문 문법이나 영어 문법 내부에서는 단일 형태소로 볼 수 없을 수 있지만, 한국어 문법에서는 외래어로서 단일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49나)의 예들은 복합어에 접미사 '-化'가 결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스탈린화(非Stalin化), 비신화화(非神話化), 비물질화(非物質化)'의 어근은 '비+스탈린', '비+신화', '비+물질'과 같은 접두 파생어들이고 '공개념화(公槪念化), 고압가스화(高壓gas化), 범세계화(汎世界化)'의 어근은 '공+개념', '고압+가스', '범+세계'와 같은 합성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49다)는 구(句)에 '-化'가 결합된 예들이라 볼 수 있다. 북한어 '문법적성분화(文法的成分化)'는 '문법적 성분' 전체에 접미사 '-化'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접미사 '-化'가 북한어에서 명사구를 어근으로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어의 '관광 자원화, 개인 공간화, 고유 명사화, 고정 관념화' 등은 접미사 '-化'가 구를 어기로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광 자원, 개인 공간, 고유 명사, 고정 개념' 전체에 '-化'가 결합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구 'A+B'와 '-化'의 결합형 '[A+B]+化'는 문맥에서 다른 문장 성분 C를 논항으로 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C [A+B]+化'의 구성은 "C가 'A+B'로 만들어지거나 됨"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 둘째, '[A+B]+化'의 구성 중 'A'는 'B+化'와 논항-술어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A의 B+化"로 해석되기 어렵다. 다음의 '관광 자원화'와 '지식 정보화'를 예로 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50) 가. 금제주의 억새꽃 관광 자원화를 위해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축제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종합 축제로 발전되고 있다.

≪연합뉴스 1994년 9월≫

가'. 우리나라의 지식 정보화는 폭발적인 인터넷 인구의 증가에 힘입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매일경제 2000년 4월≫

나. *관광의 자원화
나'. 지식의 정보화

첫째, (50가)에서 '억새꽃'이 '관광 자원화'의 논항처럼 해석될 수 있으며, '억새꽃 관광 자원화'는 "억새꽃을 관광 자원으로 만들거나 됨"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와 달리 (50가')의 '지식 정보화'의 논항은 '우리나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식 정보로 만들거나 됨"의 뜻으로 해석될 수 없고, 나아가 '지식 정보화'는 '지식 정보'에 '-化'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지식'을 논항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관광 자원화'는 "관광의 자원화"로 해석하는 것이 어색하다. 즉 '자원화'가 '관광'을 논항으로 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개인의 공간화, *고유의 명사화, *고정의 개념화'도 'A의 B+化'로 분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지식 정보화'의 경우에는 '지식의 정보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49다)의 예들을 모두 '구+-化'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접미사 '-化'가 결합할 수 있는 구의 종류는 아주 제한적이다. '관광 자원, 개인 공간, 고유 명사, 고정 개념' 등은 모두 수식 구성의 구로 보이기 때문이다.

4.2.2. 'X+化'의 외부 문법

파생어 'X+化'의 내부 문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논의가 전개되어 왔지만, 그 외부 문법에 대해 다룬 선행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 절에는 일부 한자 접두사가 파생어 'X+化'에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파생어 'X+化'에 결합할 수 있는 접두사는 '비(非)-, 탈(脱)-, 반(反)-, 재(再)-, 반(半)-' 등이 있다.

먼저 '비(非)+X+化' 구조의 단어들부터 살펴본다. 언뜻 보기에 이 구성은 "부정(否定)"의 의미를 가진 한자어 접두사 '非-'가 'X+化'에 결합하여, 결합 전의 의미와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를 파생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X+化'에 '非-'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非+X'에 '-化'가 결합하는 것으로 분석할 가능성도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실제로 '非+X+化'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그 결과는 단어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51) 가. 의미적 기준, 문법적 기준: 비(非)+[X+化]
: 비국소화(非局所化), 비사회화(非社會化), 비일상화(非日常化), 비편재화(非偏在化), 비대중화(非大衆化)
나. 의미적 기준: [비+X]+化 ; 문법적 기준: 비+[X+化]
: 비상품화(非商品化), 비국유화(非國有化), 비전문화(非專門化), 비사회화(非社會化)
다. 의미적 기준, 문법적 기준: [비(非)+X]+化
: 비현실화(非現實化), 비물질화(非物質化), 비인간화(非人間化), 비활성화(非活性化)

(51가)는 의미론적으로도 형태론적으로도 접두사 '비(非)-'가 파생어 'X+化'에 결합하는 것으로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국소화'의 경우, 문법적으로 '*비국소'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의미적으로 '비국소화'가 "물질 내에서 전자의 국소화가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非)-'가 '국소화'에 결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1나)는 의미적 기준으로는 '[비+X]+化'로 분석되는데, 문법적으로는 '비+[X+化]'로 분석되는 예들이다. 예를 들어 '비상품화'는 "상품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상품+화'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비상품'이 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非)+상품화'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51다)는 '[비(非)+X]+化'로의 분석이 의미적 기준과 문법적 기준에 모두 동일하게 부합되는 예들이다. 의미적으로는 '비물질화, 비음절화, 비신화화, 비인간화'의 '비(非)-'는 '물질', '음절', '신화', '인간'에 대해 부정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지, '물질화, 음절화, 신화화, 인간화'에 부정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비현실, 비음절, 비신화, 비인간'은 문법적으로 홀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들은 접두 파생어 '비(非)+X'에 접미사 '-化'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하는 쪽이 더 타

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탈(脫)+X+化' 구조로 된 단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명희(2005: 223)에서는 '탈권력화(脫權力化), 탈단백화(脫蛋白化), 탈중심화(脫中心化), 탈아미노화(脫amino化)'의 접두 한자어 '탈-'이 어근 X에 먼저 결합한 후에 '-化'가 결합한 것으로 본다. 즉 이 논의에 따르면 '탈권력화(脫權力化)'는 '탈권력(脫權力)'에 '-化'가 다시 붙은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어의 '탈(脫)+X' 구조가 생산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 형성 요소로 재분석되기 쉽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탈권력(脫權力), 탈중심(脫中心)' 등, '탈(脫)+X' 구조의 단어들은 다음과 같이 문맥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52) 가. 지역 문학 운동은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해체하여 경계가 없는 탈중심의 세계를 삶의 미래적 내용으로 상정하는 것이라는 게 O 씨의 논지이다.
《연합뉴스 1990년》

나. 탈권력의 국정원 혁신을 원활하게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2005년》

다. 현 시점에서는 탈민족, 탈국가를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의 민족, 국가 등을 둘러싼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서로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는 일이 중요하다.
《동아일보 2003년》

라. 탈공업(脫工業) 시대에는 거대한 것보다 작은 것이 유리해진다는 시대이다.
《축소지향의 일본인》

(52)과 같이 '탈중심, 탈권력, 탈민족, 탈국가, 탈공업' 등 '탈(脫)+X'가 독립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탈(脫)+X+化' 구조로 된 단어가 '[탈(脫)+X]+化'로 분석되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반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탈(脫)+X+化'들은 '탈(脫)+X'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되지도 않는다.

(53)

가.	나.	다.
탈상품화(脫商品化)	*탈상품	상품화(商品化)
탈동조화(脫同調化)	*탈동조	동조화(同調化)
탈단백화(脫蛋白化)	*탈단백	단백화(蛋白化)
탈성숙화(脫成熟化)	*탈성숙	성숙화(成熟化)
탈성매매화(脫性賣買化)	*탈성매매	성매매화(性賣買化)
탈한정화(脫限定化)	*탈한정	한정화(限定化)

(53가)의 '탈(脫)+X+化' 구조로 된 단어들의 '탈(脫)+X' 부분은 (53나)처럼 단어 자격도 없으며, 실제로 자주 쓰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53다)에서 제시한 'X+化' 부분은 모두 한국어에서 단어 자격을 가지고 있는 파생어이다. 따라서 '탈(脫)+X+化'들도 단어마다 의미적 기준과 문법적 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54) 가. 의미적 기준, 문법적 기준: 탈(脫)+[X+化]
: 탈대중화(脫大衆化), 탈성숙화(脫成熟化), 탈상품화(脫商品化), 탈한정화(脫限定化)
나. 의미적 기준: [탈(脫)+X]+化 ; 문법적 기준: 탈(脫)+[X+化]
: 탈종속화(脫從屬化), 탈문법화(脫語法化), 탈남성화(脫男性化), 탈가족화(脫家族化)
다. 의미적 기준, 문법적 기준: [탈(脫)+X]+化
: 탈경계화(脫警戒化)
라. 양면 분석 가능
: 탈공업화(脫工業化), 탈윤리화(脫倫理化), 탈국가화(脫國家化), 탈서구화(脫西歐化), 탈중심화(脫中心化)

(54가)에서 '탈(脫)+X+化'는 모두 '탈(脫)+[X+化]'로 분석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탈(脫)+X'가 문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54나)는 의미적으로 꼭 '[탈(脫)+X]+化'로 분석해야 될 단어들이지만, 실제로 '탈(脫)+X'가 홀로 쓰이지는 못하는 것들이다. (54다)의 경우에는 'X+化'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의미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탈(脫)+X]에 '化'가 결합되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脫)+X+化'는 (54다)에서 제시한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의 분석이 모두 가능하다.

(55) 가. 의미적 기준, 문법적 기준: 반(反)+[X+化]
: 반사회화(反社會化), 반세계화(反世界化), 반희석화(反稀釋化)
나. 양면 분석 가능
: 반민주화(反民主化), 반분권화(反分權化)

(55가)의 예들은 모두 "'X+化'를 반대하거나 어긋나게 만들거나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反)+[X+化]'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55나)의 예들은 문맥에 따라 양면 분석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56) 재(再)+[X+化]
: 재결정화(再結晶化), 재구조화(再構造化), 재자원화(再資源化), 재활성화(再活性化), 재규격화(再規格化), 재매개화(再媒介化), 재사회화(再社會化), 재상피화(再上皮化), 재양자화(再量子化), 재영역화(再領域化), 재형식화(再形式化)

(56)의 예들을 분석된 구조가 상대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거의 항상 파생어 'X+化'에 '재(再)-'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접두사 '재-'는 서술성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57) 가. 양면 분석 가능
반기계화(半機械化), 반자동화(半自動化), 반강제화(半強制化)
나. [半(반)+X]+化
반모음화(半母音化)

(57)는 '半(반)+X+化' 구조로 된 단어들인데, (57가)의 '반기계화', '반자동화'와 '반강제화'는 모두 양면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57나)의 '반모음화'는

“반모음으로 바뀌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모음’에 접미사 ‘化’가 붙이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58) [초(超)+X]+化

초고속화(超高速化), 초경량화(超輕量化), 초고령화(超高齡化), 초강대국화(超強國化), 초민족화(超民族化), 초고집적화(超高集積化), 초소형화(超小型化)

‘재(再)+X+化’, ‘반+X+化’와 달리 ‘초(超)+X+化’는 의미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초(超)+X’에 ‘化’가 결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초(超)-’는 “어떤 범위를 넘어선” 또는 “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서 ‘초강대국, 초고속, 초고령’ 등의 파생어를 만들 수 있다.

요컨대 ‘비(非)+X+化’, ‘탈(脫)+X+化’와 ‘반(反)+X+化’ ‘半(반)+X+化’ 구성을 가진 이중 파생어들은 단어마다, 심지어 같은 단어라도 의미적 기준과 문법적 기준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달리 ‘재(再)+X+化’와 ‘초(超)+X+化’로 된 단어들은 모두 접두사 ‘재(再)-’와 ‘초(超)-’가 파생어 ‘X+化’에 결합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어 ‘X+化’를 2자어와 다자어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 목적과 대상을 밝히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X+化’ 구조의 예들은 주로 《연세》, 《표준》에 등재된 표제어와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수집하였다.

제2장에서는 통시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化’의 공시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현대 한국어 ‘化’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그중 ①, ②, ③의 의미는 고전 중국어에서 비롯되었고, ④, ⑤의 의미는 일본어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의미		예
중심적인 의미	①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	변화
기원적인 의미	②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	교화
파생적인 의미	③ 천지자연이 만물을 생육(生育)하는 작용.	조화
	④ 화학(化學)	화공
	⑤ 그렇게 만들거나 됨	녹화

제3장에서는 2자어 ‘X+化’의 의미적 특징과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의미론적으로는 2자어 ‘X+化’가 서술성 명사도 만들고, 불완전 서술성 명사도 만들고 비서술성 명사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불완전 서술성 명사와 비서술성 명사는 대부분 ‘化’가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이나 “천지자연이 만물을 생육(生育)하는 작용”이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들이다. 2자어 ‘X+化’의 내

부 의미 관계는 주로 X가 '化의 방법, 수단' 혹은 '化의 결과, 방향'인 경우, X와 '化'의 의미가 동일한 경우 등이 있다.

2자어 'X+化'의 문법적 특징은 먼저 한문 문법의 측면에서 X와 '化'의 문법 관계를 살펴보았다. 'X+化'의 내부 구성은 보족 구성, 병렬 구성, 술목 구성, 접미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어근 접미 구성인 2자어를 상대 빈도, 어근 활성도, 의미의 어휘화의 세 가지 접근 방식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현대 한국어에서 파생어라기보다는 단일어로 여겨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적 특징			**문법적 특징**		예
'化'의 의미	'X'와 '化'의 의미 관계	서술성 41)	'X'와 '化'의 문법 관계	어원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	수단, 방법 기타	●	보족 구성, 병렬 구성 등	고전중국어	변화(變化)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		● ◐ ○			교화(敎化)
천지자연이 만물을 생육(生育)하는 작용.	동의, 기타	● ◐ ○			조화(造化)
그렇게 만들거나 됨.	방향, 결과	●	접미 구성	일본어	녹화(綠化)

제4장에서는 다자어 'X+化'의 의미적 특징과 문법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선 접미사 '-化'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① 선행 요소인 X를 만들거나 X가 됨.

41) ●: '-하다, -되다, -시키다'와 모두 결합할 수 있음, ◐'-하다, -되다, -시키다'의 일부분만 결합할 수 있음, ○: '-하다, -되다, -시키다'와 모두 결합할 수 없음.

② 선행요소인 X의 특성, 성질을 지니게 만듦.
③ 선행요소인 X의 상태를 만들거나 됨.

어근 X의 의미에 대해서는 상적 특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X에 적용해 보았는데, 접미사 '-化'가 [-결과성]을 지니는 어근을 취하지 못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어근 X의 의미 반영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근 X의 기본적인 의미가 파생어 'X+化'에 반영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X+化'의 어근 X가 주변적인 의미로만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X의 주변적인 의미만 반영하는 경우는 주로 기본적인 의미가 주변적인 의미보다 구체적인 의미일 때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일부 파생어 'X+化'들은 어근 X의 추상적인 의미와만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문법적으로는 파생어 'X+化'의 내부 문법과 외부 문법을 논의하였다. 내부 문법의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접미사 '-化'는 고유어보다는 한자어, 외래어와 더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도 접미사 '-化'의 높은 생산성 덕분에 최근 들어서는 약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접미사 '-化'는 단일 형태소뿐만 아니라 복합어, 심지어 단어 이상의 단위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만 이때 결합할 수 있는 구(句)의 종류는 수식 구성으로 제한되어 있다.

외부 문법적 특징은 한자 접두사 일부, 그리고 X와 '-化'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X와 '-化'는 접두사 '비(非)-, 탈(脫)-, 반(反)-, 재(再)-' 등과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非)+X+化', '탈(脫)+X+化', '반(反)+X+化' 등 구조로 된 단어들의 분석 결과는 단어마다, 심지어 하나의 단어에서도 의미 기준과 문법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사실상 이 단어들의 형성 과정은 밝히기가 어렵고 단일한 분석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역시 고유어와 다른, 한자 이중 파생어의 특별한 성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사전류]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광숙(1998), 《8282한자사전》, 서울 : 語文閣.

백문식(2014), 《우리말어원사전》, 서울: 박이정.

원영섭(2002), 《가나다 한자사전》, 참이슬.

이희승(1982),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하영삼(2014), 《한자어원사전》, 부산 : 도서출판3.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web2.korean.go.kr)

연세한국어사전(https://ilis.yonsei.ac.kr/ysdic/)

우리말샘(opendict.korean.go.kr)

刘正琰 等(1984), 《汉语外来词词典》

王力等(1979,2001), 《古代汉语常用字字典》, 商务印书馆

许慎(1988), 《说文解字》, 世界书局.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编(1996), 《现代汉语词典》, 商务印书馆.

北京语言大学-BCC现代汉语语料库(http://bcc.edu.cn/)

[논저]

고영근·남기심(1985),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집문당.

고영근(1993a),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3) - 접미적 파생법의 기술방법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9-1.

_____(1993b),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4) - 동요상황을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 12.

김완진(1973), 국어 어휘 마멸의 연구, 《진단학보》 35, 34-59.

김창섭(1995), 국어 파생접사와 파생어의 사전적 기술, 《애산학보》 16.

_____(1999), 《국어어휘자료를 위한 한자어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_____(2001),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국어학》 37, 국어학회, 177-195 .
_____(2013), '-的'의 두음 경음화와 2자어 3자어론, 《국어학》 68, 국어학회, 167-188.
노명희(1998),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국어학총서 49, 태학사.
박영섭(1995), 《국어 한자어 어휘론》, 서울: 박이정.
박재연(2011),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 연구: '양보, 설명, 발견'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백문식(2014), 《우리말어원사전》, 서울: 박이정.
송기중(1992), 현대국어 한자어의 구조, 한국어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병근 외(1993)에 재수록]
송철의(2008),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신창순(1969), 한자어 소고, 국어국문학42·43
안소진(2014), 《심리어휘부에 기반한 한자어 연구》, 국어학총서 69, 태학사.
오규환·김민국·정한데로·송재영 (역)(2015), 《형태론의 이해》, 도서출판 역락.
오호(2016), '自+X'와 '本+X'의 문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대성(1985), 명사의 상적 특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윗밍(2011), 한국어 단어형성에서의 '生'의 용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평현(2009), 《국어의미론》, 역락.
이광호(2007a), 국어 파생 접사에 대한 계량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07b), 상대 빈도를 이용한 생산성 측정에 대한 연구, 《국어학》 50, 국어학회, 57-76.
이병근 · 채완 · 김창섭(1993), 형태, 국어학 강좌 3, 태학사.
정민영(1994), 국어 한자어의 단어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칼리나(2011), 현대 한국어 한자어 '別'의 의미와 문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崔玉珍(2004),"化"字的语法化过程及其辨析《语言学科》13, 51-56.
陈晓明(2005),浅析词缀"化"及化缀词,《江汉大学学报(人文科学版)》.
广东,广西,湖南,河南辞源修订组, 商务印书馆编辑部(1988),《辞源》, 北京:商务印书馆.
胡松柏(1982), 浅谈词尾化,《上饶师专学报》.
商务印书馆编辑部(1988), 北京商务印书馆,
史红改(2009),词尾"化"的来源、意义及"X化"动词语义特征,北京广播电视大学报》 51,41-44.
许慎(2006), 《说文解字·文白对照》, 九州出版社
许慎撰·段玉裁注(1988), 《说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Bybee, J. L,(1995b), Regular morphology and the lexicon,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 10.5, 425-455.
Bybee, J. L,(2007) Frequency of Use and the Organization of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Hay(2001), Lexical frequency in morphology: Is everything relative?, Linguistics 39-4, 1041-1070.

<부록1> 《연세한국어사전》에 수록된 'X+化'(총 169개)

가속화(加速化), 간소화(簡素化), 감화(感化), 강화(强化), 개념화(槪念化), 개방화(開放化), 개별화(個別化), 개화(開化), 객관화(客觀化), 격화(激化), 경화(硬化), 계열화(系列化), 고도화(高度化), 고립화(孤立化), 고정화(固定化), 고착화(固着化), 공산화(共産化), 공식화(公式化), 공업화(工業化), 과학화(科學化), 교화(敎化), 구상화(具象化), 구조화(構造化), 구체화(具體化), 국산화(國産化), 국유화(國有化), 국제화(國際化), 궁핍화 (窮乏化), 귀화(歸化), 규격화(規格化), 극단화(極端化), 극대화(極大化), 극소화(極小化), 근대화(近代化), 기계화(機械化), 기사화(記事化), 기업화(企業化), 기화(氣化), 내면화(內面化), 노골화(露骨化), 노화(老化), 녹화(綠化), 능률화(能率化), 다극화(多極化), 다변화(多邊化), 다양화(多樣化), 다원화(多元化), 단순화(單純化), 단일화(單一化), 대량화(大量化), 대상화(對象化), 대중화(大衆化), 대형화(大型化), 도구화(道具化), 도시화(都市化), 독재화(獨裁化), 독점화(獨占化), 동일화(同一化), 동질화(同質化), 동화(同化), 둔화(鈍化), 명문화(明文化), 무력화(無力化), 문명화(文明化), 문화(文化), 미분화(未分化), 미화(美化), 민영화(民營化), 민주화(民主化), 백지화(白紙化), 범주화(範疇化), 법제화(法制化), 변화(變化), 보편화(普遍化), 본격화(本格化), 부실화(不實化), 부화(孵化), 분권화(分權化), 분업화(分業化), 분화(分化), 불법화(不法化), 사유화(私有化), 사회화(社會化), 산성화(酸性化), 산업화(産業化), 산화(酸化), 상징화(象徵化), 상품화(商品化), 생활화(生活化), 서구화(西歐化), 서양화(西洋化), 세계화(世界化), 세분화(細分化), 세속화(世俗化), 소설화(小說化), 소화(消化), 순화(純化), 습관화(習慣化), 습성화(習性化), 시각화(視覺化), 신격화(神格化), 실용화(實用化), 심화(深化), 악화(惡化), 안정화(安定化), 약화(弱化), 양극화(兩極化), 양성화(陽性化), 영화화(映畵化), 우상화(偶像化), 유형화(類型化), 유화(類化), 융화(融化), 의무화(義務化), 의식화(意識化), 의인화(擬人化), 이론화(理論化), 이상화(理想化), 이온화(ion化), 적화(赤化), 전문화(專門化), 전산화(電算化), 일반화(一般化), 일상화(日常化), 일원화(一元化), 입법화(立法化), 자동화(自動化), 자유화(自由化), 장기화(長期化), 전화(轉化), 절대화(絶對化), 정당화(正當化), 정보화(情報化), 정상화(正常化), 정

형화(定型化), 정화(淨化), 제도화(制度化), 조화(造化), 조직화(組織化), 좌경화(左傾化), 중립화(中立化), 진화(進化), 집권화(集權化), 집단화(集團化), 집중화(集中化), 차별화(差別化), 첨예화(尖銳化), 체계화(體系化), 체질화(體質化), 초토화(焦土化), 추상화(抽象化), 탄화(炭化), 토착화(土着化), 퇴화(退化), 특수화(特殊化), 평준화(平準化), 표면화(表面化), 표준화(標準化), 합리화(合理化), 합법화(合法化), 현대화(現代化), 현실화(現實化), 형상화(形象化), 형식화(形式化), 활성화(活性化), 활자화(活字化), 황폐화(荒廢化), 획일화(劃一化), 효율화(效率化)

<부록 2>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X+화(化)'(총 817개)

가격계획화(價格計劃化), 가성화(苛性化), 가소화(可塑化), 가속화(加速化), 가스화(gas化), 가시화(可視化), 가용화(可溶化), 가정혁명화(家庭革命化), 가축화(家畜化), 가질화(角質化), 각화(角化), 간석지록화(干潟地綠化), 간소화(簡素化), 간음화(間音化), 간이화(簡易化), 갈매화(－－化), 감화(感化), 감화(鹼化), 갑문화(閘門化), 강변화(強變化), 강조화(強調化), 강화(强化), 개방화(開放化), 개성화(個性化), 개화(改化), 개화(開化), 객관화(客觀化), 갱도영구화(坑道永久化), 갱도화(坑道化), 거석문화(巨石文化), 거품화(－－化), 건전화(健全化), 건축화(建築化), 겉개화(－開化), 격식화(格式化), 격음화(激音化), 격화(激化), 견고화(堅固化), 결정화(結晶化), 결합화(結合化), 경계강화(境界強化), 경구개음화(硬口蓋音化), 경변화(硬變化), 경음화(硬音化), 경직화(硬直化), 경화(硬化), 계급분화(階級分化), 계기화(計器化), 계량화(計量化), 계산기모형화(計算器模型化), 계열화(系列化), 계층화(階層化), 계획화(計劃化), 고급문화(高級文化), 고급화(高級化), 고도순화(高度馴化), 고도화(高度化), 고령화(高齡化), 고립화(孤立化), 고속도화(高速度化), 고속화(高速化), 고압가스화(高壓gas化), 고유문화(固有文化), 고정화(固定化), 고착화(固着化), 고체화(固體化), 고화(固化), 공개념화(公槪念化), 공고화(鞏固化), 공동화(空洞化), 공론화(公論化), 공산화(共産化), 공식화(公式化), 공업화(工業化), 공영화(公營化), 공용화(共用化), 공원화(公園化), 공유화(共有化), 공장화(工場化), 공진화(共進化), 과각화(過角化), 과격화(過激化), 과밀화(過密化), 과산화(過酸化), 과진화(過進化), 과학화(科學化), 관례화(慣例化), 관료화(官僚化), 관리자동화(管理自動化), 관제문화(官制文化), 관화(管化), 광물질화(鑛物質化), 광물화(鑛物化), 광산화(光酸化), 광선부화(光線孵化), 광역화(廣域化), 광이온화(光ion化), 광화(鑛化), 교화(敎化), 교화(膠化), 구개음화(口蓋音化), 구락부화(俱樂部化), 구상화(具象化), 구조화(構造化), 구체화(具體化), 구화(歐化), 국산화(國産化), 국악화(國樂化), 국영화(國營化), 국유화(國有化), 국지화(局地化), 국한화(局限化), 군국주의화(軍國主義化), 군국화(軍國化, 군사화(軍事化), 군화(群化), 굴포문화(屈浦文化), 궁산문화(弓山文化), 궁화(躬化), 권화(勸化), 권화(權化), 귀족화(貴族化), 귀화(鬼化), 귀화(歸化), 규격화

(規格化), 규범화(規範化), 규칙변화(規則變化), 규칙화(規則化), 규화(硅化/珪化), 균등화(均等化), 균일화(均一化), 극대화(極大化), 극렬화(極烈化), 극문화(劇文化), 극소화(極小化), 극소화(極少化), 극화(劇化), 근대화(近代化), 금속화(金屬化), 기계화(機械化), 기사화(記事化), 기술화(技術化), 기억모형화(記憶模型化), 기업화(企業化), 기정사실화(旣定事實化), 기준화(基準化), 기질화(器質化), 기층문화(基層文化), 기형화(畸形化), 기화(氣化), 기화(機化), 나이트로화(nitro化), 난화(難化), 내면화(內面化), 내실화(內實化), 내연화(內燃化), 내해문화(內海文化), 네트워크화(network化), 노골화(露骨化), 노예화(奴隸化), 노화(老化), 노후화(老朽化), 녹화(綠化), 농노화(農奴化), 농업집단화(農業集團化), 농업협동화(農業協同化), 농음화(濃音化), 농촌뻐스화(農村bus化), 농화(濃化), 눈조화(-造化), 률화(能率化), 능화(能化), 니트로화(nitro化), 다각화(多角化), 다당화(多黨化), 다면화(多面化), 다문화(多文化), 다배체화(多胚體化), 다양화(多樣化), 다원화(多元化), 다이아조화(diazo化), 다중화(多重化), 다핵화(多核化), 단능화(單能化), 단물화(--化), 단순화(單純化), 단어화(單語化), 단위자화(單位化), 단일화(單一化), 담수화(淡水化), 당화(糖化), 대상화(對象化), 대중문화(大衆文化), 대중화(大衆化), 대진화(大進化), 대항문화(對抗文化), 대형화(大型化), 대화(大化), 대화(帶化), 덕화(德化), 데이터베이스화(database化), 도시록화(都市綠化), 도시원림화(都市園林化), 도시화(都市化), 도식화(圖式化), 도안화(圖案化), 도작문화(稻作文化), 도형화(圖形化), 도화(陶化), 도화(道化), 돈화(敦化), 동결풍화(凍結風化), 동기화(同期化), 동기화(動機化), 동력기계화(動力機械化), 동력화(動力化), 동일화(同一化), 동질화(同質化), 동화(同化), 되돌이변화(---變化), 둔화(鈍化), 등식화(等式化), 디아조화(diazo化), 뜻변화(-變化), 라세미화(←racemic化), 량극화(兩極化), 량자화(量子化), 량적변화(量的變化), 레진화(resin化), 렬차사령자동화(列車司令自動化), 렬화(劣化), 령화(靈化), 례화(禮化), 로골화(露骨化), 로봇화(robot化), 로봇화(robot化), 로화(老化), 록화(綠化), 론리함수간단화(論理函數簡單化), 류동화(流動化), 류화(硫化), 류화(類化), 리그닌화(lignin化), 리론화(理論化), 리화(理化), 린접동화(鄰接同化), 마이크로캡슐화(microcapsule化), 만성화(慢性化), 만화(萬化), 만화화(漫畫化), 말소리변화(---變化), 멀티미디어화(multimedia化), 메탄가스화(methane gas化), 메탄

화(methane化), 메테인화(methane化), 메틸화(methyl化), 명문화(明文化), 모리화(謀利化), 모의화(模擬化), 모형화(模型化), 모화(慕化), 목전화(木栓化), 목질화(木質化), 목화(木化), 묘계현화(妙契玄化), 무능화(無能化), 무대화(舞臺化), 무독화(無毒化), 무성음화(無聲音化), 무성화(無聲化), 무용화(舞踊化), 무위이화(無爲而化), 무인화(無人化), 무작위화(無作爲化), 무효화(無效化), 문건화(文件化), 문명개화(文明開化), 문민화(文民化), 문법적성분화(文法的成分化), 문서화(文書化), 문장성분화(文章成分化), 문장화(文章化), 문제화(問題化), 문화(文化), 물질문화(物質文化), 물화(物化), 미화(美化), 민영화(民營化), 민주주의화(民主主義化), 민주화(民主化), 민중화(民衆化), 반기계화(半機械化), 반동문화(反動文化), 반목질화(半木質化), 반자동화(半自動化), 방식화(方式化), 방언의수평화(方言－水平化), 방향족화(芳香族化), 배분화(胚分化), 백열화(白熱化), 백지화(白紙化), 백화(白化), 법문화(法文化), 법인화(法人化), 법제화(法制化), 법화(法化), 변모음화(變母音化), 변화(變化), 병원화(病院化), 보편화(普遍化), 보호중성화(保護中性化), 복선화(複線化), 복음화(福音化), 복잡화(複雜化), 복호화(復號化), 본격화(本格化), 부동태화(不動態化), 부식화(腐植化), 부실화(不實化), 부영양화(富營養化), 부호화(符號化), 부화(富化), 부화(孵化), 분권화(分權化), 분극화(分極化), 분업화(分業化), 분탄가스화(粉炭gas化), 분화(分化), 불교문화(佛敎文化), 불구화(不具化), 불규칙변화(不規則變化), 불균등화(不均等化), 불모화(不毛化), 불법화(不法化), 불소화(不消化), 불소화(弗素化), 불연화(不燃化), 불함문화(不咸文化/弗咸文化), 불화(弗化), 불활성화(不活性化), 농문화(聾文化), 붕화(崩化), 브로민화(bromine化), 브롬화(Brom化), 블로크화(block化), 블록화(block化), 비군사화(非軍事化), 비날론화(－－－化), 비누화(－－化), 비닐화(vinyl化), 비법화(非法化), 비속화(卑俗化), 비스탈린화(非Stalin化), 비신화화(非神話化), 비음화(鼻音化), 비인간화(非人間化), 비핵화(非核化), 뻐스화(bus化), 사가화(死街化), 사문화(死文化), 사문화(死門化), 사유화(私有化), 사이안화(cyan化), 사회화(社會化), 산림녹화(山林綠化), 산문화(散文化), 산성화(酸性化), 산업화(産業化), 산화(酸化), 삼산화(三酸化), 상강화(相強化), 상대적빈궁화(相對的貧窮化), 상변화(相變化), 상습화(常習化), 상식화(常識化), 상업화(商業化), 상징화(象徵化), 상태간단화(狀態簡單化), 상태부호화(狀態符號化), 상품화(商品化),

생력화(省力化), 생산문화(生産文化), 생필품화(生必品化), 생화(生化), 생활문화(生活文化), 생활화(生活化), 서구화(西歐化), 서양화(西洋化), 석출강화(析出強化), 석탄가스화(石炭gas化), 석탄화(石炭化), 석화(石化), 석회화(石灰化), 선교섭화(善巧攝化), 선진화(先進化), 선형화(線形化), 선화(仙化), 선화(宣化), 선화(善化), 설폰화(sulfone化), 섭화(攝化), 성격화(性格化), 성문화(成文化), 성문화(聲門化), 성변화(聖變化), 성인문화(成人文化), 성화(聖化), 세계화(世界化), 세력화(勢力化), 세부계획화(細部計劃化), 세분화(細分化), 세석기문화(細石器文化), 세속화(世俗化), 소비문화(消費文化), 소설화(小說化), 소비문화(消費文化), 소진화(小進化), 소프트화(soft化), 소형화(小形化), 소화(所化), 소화(消化), 소화(燒化), 속화(俗化), 수량화(數量化), 수리화(水利化), 수문지질구역화(水文地質區域化), 수산화(水酸化), 수소화(水素化) 수은화(水銀化), 수치화(數値化), 순수화(純粹化), 순시경화(瞬時硬化), 순음화(脣音化), 순화(巡化), 순화(純化), 순화(馴化), 순화(醇化), 술폰화(sulfone化), 습관화(習慣化), 습성화(習性化), 시각화(視覺化), 시간량자화(時間量子化), 시디롬화(CD-ROM化), 시안화(cyaan化), 시화(詩化), 식문화(食文化), 식민지화(植民地化), 식민화(植民化), 식화(息化), 신격화(神格化), 신문화(新文化), 신비화(神祕化), 신성화(神聖化), 신조화(信條化), 신호화(信號化), 실용화(實用化), 실천화(實踐化), 실체화(實體化), 심각화(深刻化), 심화(深化), 아동문화(兒童文化), 아말감화(amalgam化), 아미노화(amino化), 아산화(亞酸化), 아세틸화(acetyl化), 아실기화(acyl基化), 아실화(acyl化), 아이오딘화(iodine化), 악화(惡化), 안전화(安定化), 알카리화(alkali化), 알칼리화(alkali化), 알킬화(alkyl化), 알탄가스화(-炭gas化), 암내동기화(--同期化), 암호화(暗號化), 암화(暗化), 애림녹화(愛林綠化), 애매화(曖昧化), 액체화(液體化), 액화(液化), 야금공정모형화(冶金工程模型化), 야금공정자동화(冶金工程自動化), 야화(野化), 약변화(弱變化), 약체화(弱體化), 약화(弱化), 양극화(兩極化), 양성화(陽性化), 양식화(樣式化), 양자화(量子化), 양질화(良質化), 어미변화(語尾變化), 어음변화(語音變化), 어휘화(語彙化), 언어문화(言語文化), 얼개화(-開化), 에스터화(ester化), 에스테르화(ester化), 에테르화(ether化), 에틸화(ethyl化), 여론화(輿論化), 연구개음화(軟口蓋音化), 연극화(演劇化), 연동화(聯動化), 연변화(軟變化), 연수화(軟水化), 연화(緣化), 열화(劣化), 염류화(鹽類

化), 염소화(鹽素化), 염화(染化), 염화(鹽化), 영구화(永久化), 영화(靈化), 영화화(映畫化), 예속화(隷屬化), 예술화(藝術化), 예화(禮化), 오염화(五鹽化), 오예화(汚穢化), 옥소화(沃素化), 옥화(沃化), 온난화(溫暖化), 완전가스화(完全gas化), 왕화(王化), 왜소화(矮小化), 외래문화(外來文化), 요새화(要塞化), 요오드화(Jod化), 욕화(浴化), 용매화(溶媒化), 용해화(溶解化), 용화(蛹化), 용화(鎔化), 우경화(右傾化), 우매화(愚昧化), 우민화(愚民化), 우상화(偶像化), 우성화(優性化), 우화(羽化), 원격화(遠隔化), 원자화(原子化), 위탁부화(委託孵化), 위화(委化), 유닛화(unit化), 유리화(有理化), 유음화(流音化), 유탁화(乳濁化), 유화(乳化), 유화(硫化), 유화(遊化), 유화(類化), 육도능화(六道能化), 육화(肉化), 융화(隆化), 융화(融化), 은화(恩化), 음성화(陰性化), 응화(應化), 의무화(義務化), 의식화(意識化), 의인화(擬人化), 의화(義化), 이론화(理論化), 이류화(二硫化), 이발불소화(--弗素化), 이브로민화(二bromine化), 이브롬화(二Brom化), 이산화(二酸化), 이상화(理想化), 이성질체화(異性質體化), 이성질화(異性質化), 이성체화(異性體化), 이성화(異性化), 이온화(ion化), 이원화(二元化), 이유화(二硫化), 이질화(異質化), 이취화(二臭化), 이핵화(二核化), 이화(二化), 이화(理化), 이화(異化), 이황화(二黃化), 인간화(人間化), 인격화(人格化), 인산화(燐酸化), 인습화(因習化), 인화(仁化), 일개월화(日改月化), 일반화(一般化), 일변화(日變化), 일신월화(日新月化), 일원화(一元化), 일차결정화(一次結晶化), 일체화(一體化), 일화(一化), 임펄스화(impulse化), 임풀스화(impulse化), 입법화(立法化), 입상화(粒狀化), 자기로화(磁氣老化), 자기화(磁氣化), 자동코드화(自動code化), 자동화(自動化), 자문화(自文化), 자생적어음변화(自生的語音變化), 자성화(磁性化), 자연정화(自然淨化), 자유화(自由化), 자율화(自律化), 자체소화(自體消化), 잡식화(雜食化), 잡종화(雜種化), 장기화(長期化), 장음화(長音化), 재귀화(再歸化), 재상피화(再上皮化), 재염화(再鹽化), 재체제화(再體制化), 저석회화(低石灰化), 저속화(低俗化), 저유황화(低硫黃化), 저황화(低黃化), 적극화(積極化), 적색화(赤色化), 적응화(適應化), 적화(赤化), 적화(寂化), 전간성성격변화(癲癎性性格變化), 전경화(前景化), 전기화(電氣化), 전력화(電力化), 전모음화(前母音化), 전문화(專門化), 전설화(傳說化), 전송색신호다중화(傳送色信號多重化), 전장화(戰場化), 전통문화(傳統文化), 전통화(傳統化), 전형화(典型化), 전화(電化), 전화

(轉化), 절가화(節歌化), 점수화(點數化), 점화(點化), 정당화(正當化), 정량화(定量化), 정례화(定例化), 정밀화(精密化), 정보화(情報化), 정상화(正常化), 정식화(定式化), 정신문화(精神文化), 정예화(精銳化), 정치도구화(政治道具化), 정칙변화(正則變化), 정화(正化), 정화(政化), 정화(淨化), 젖제화(－劑化), 제도문화(制度文化), 제도화(制度化), 제제화(製劑化), 제품화(製品化), 제화(濟化), 젤화(gel化), 조잡화(粗雜化), 조직화(組織化), 조형화(造形化), 조화(造化), 좌경화(左傾化), 좌익화(左翼化), 좌화(坐化), 주관화(主觀化), 준위량자화(準位量子化), 중대화(重大化), 중립화(中立化), 중성화(中性化), 중수소화(重水素化), 지구촌화(地球村化), 지능화(知能化), 지란지화(芝蘭之化), 직업화(職業化), 진화(進化), 질산화(窒酸化), 질소화(窒素化), 질화(窒化), 집단화(集團化), 집적화(集積化), 집중화(集中化), 차등화(差等化), 차별화(差別化), 찰개화(－開化), 채형화(彩型化), 천변만화(千變萬化), 천지조화(天地造化), 천태만화(千態萬化), 천화(遷化), 철도자동화(鐵道自動化), 철도전기화(鐵道電氣化), 첨단화(尖端化), 첨예화(尖銳化), 청화(靑化), 청화(淸化), 체계화(體系化), 체화(體化), 초토화(焦土化), 최대화(最大化), 최량계획화(最良計劃化), 최량부호화(最良符號化), 최소화(最小化), 최소화(最少化), 최적화(最適化), 추상화(抽象化), 추화(醜化), 춘화(春化), 출판문화(出版文化), 취기화(臭氣化), 취소화(臭素化), 취화(臭化), 층화(層化), 치화(治化), 코르크화(cork化), 코크스화(cokes化), 킬레이트화(chelate化), 타화(他化), 탄산화(炭酸化), 탄화(炭化), 탈대중화(脫大衆化), 탈분화(脫分化), 탈아스팔트화(脫asphalt化), 탈질화(脫窒化), 탈파라핀화(脫Paraffin化), 탈화(脫化), 태선화(苔癬化), 태화(胎化), 토착화(土着化), 통속화(通俗化), 통화(通化), 퇴화(退化), 투화(投化), 투화(透化), 특수화(特殊化), 특징화(特徵化), 판화(瓣化), 팽화(膨化), 페로사이안화(ferrocyanide化), 페로시안화(ferrocyanide化), 페리사이안화(ferricyanic化), 페리시안화(ferricyanide化), 페지화(page化), 편재화(偏在化), 편직화(編織化), 평균화(平均化), 평범화(平凡化), 평준화(平準化), 폐허화(廢墟化), 폭민화(暴民化), 표면화(表面化), 표본화(標本化), 표준화(標準化), 풍운조화(風雲造化), 풍화01(風化), 풍화02(風化), 플루오르화(Fluor化), 플루오린화(fluorine化), 하위문화(下位文化), 한글문화(－－文化), 할로겐화(Halogen化), 할로젠화(halogen化), 합금화(合金化), 합리화(合理化), 합법화(合法

化), 핵가족화(核家族化), 행화(行化), 향화(向化), 험악화(險惡化), 현금화(現金化), 현대화(現代化), 현실화(現實化), 현지화(現地化), 현화(現化), 형상화(形象化), 형식화(形式化), 형태화(形態化), 혜화(惠化), 호화(糊化), 화석화(化石化), 화성화(和聲化), 화화(火化), 환골우화(換骨羽化), 환식화(環式化), 환화(幻化), 활성화(活性化), 활자화(活字化), 황민화(皇民化), 황백화(黃白化), 황폐화(荒廢化), 황화(黃化), 회분화(灰分化), 회신화(灰燼化), 회화(灰化), 회화(誨化), 획일화(劃一化), 효소유연화(酵素柔軟化), 후두화(喉頭化), 훈화(訓化), 훈화(薰化), 휴지화(休紙化), 흑도문화(黑陶文化), 흑연화(黑鉛化), 흑화(黑化), 흥행화(興行化), 희곡화(戱曲化), 희화(戱化), 희화화(戱畫化)

<中文摘要>

现代韩国语“X+化”的研究

金 琦

本文主要以现代韩国语中具有“X+化”结构的词汇为研究对象，将“X+化”分为二字词和多字词来进行分析，考察了二字词“X+化”和多字词“X+化”语义和语法上的差别。本文首先对现代韩国语中汉字“化”的语义进行了归纳总结，在此基础上对二字词“X+化”和多字词“X+化”的语义特征和语法特征进行了详细的研究。

现代韩国语中汉字“化”的语义大致可以分为五种。第一种是“化”的中心语义“变化”，第二种是“化”的起源语义“教化”，剩下三种都可以看作是由“化”的中心语义“变化”衍生出的派生义，它们分别是“造化”、“化学”和“变成或使之变成”。

本文对二字词“X+化”语义特征的研究大致可以分为两方面。首先，二字词“X+化”不同于多字词“X+化”，即可以是叙述性名词，又可以非叙述性名词，还可以是不完整叙述性名词，而多字词“X+化”基本都是叙述性名词，对此差别本文从语义的角度进行了解释说明。其次，本文对二字词“X+化”中“X”和“化”的几种特殊语义关系进行了简单的探讨，将“X”和“化”的语义分为了“手段方式”、“方向结果”和“同义”等关系。二字词“X+化”的语法研究则是以汉语语法为基础，将“X”和“化”的语法结构分为补充结构、并列结构和词根后缀结构等。但是根据汉语语法划分的词根后缀结构二字词“X+化”（如：绿化），在韩国语语法中比起派生词，被看作单纯词的可能性更大，本文通过导入“相对频度”、“词根活性度”和“语义的词汇化”等概念，对此问题进行了详细的探讨和说明。

多字词“X+化”语义特征的研究主要分为三个方面。第一，联系词根“X”和派生词“X+化”的语义，对词缀“化”的语义“变成或使之变成”进行了细分；第二，通过分析词根“X”的语义特征，考察了词缀“化”对词根“X”的语义限制条件；第三，研究了词根“X”的语义在“X+化”语义中的反映程度。

多字词“X+化”的语法研究主要分为内部语法研究和外部语法研究。内部语法研究考察了词缀“化”对词根“X”的词源限制条件和结构限制条件。外部语法方面主要考察了“非+X+

化”、“脱+X+化”、“反+X+化”和“再+X+化”等派生词的语法结构，根据语义标准和语法标准对其进行分类，并总结出一些语法结构较有争议的词汇。

关键词：“X+化”， 语义，派生词，单纯词，汉语语法，内部语法，外部语法

学号：2016-26887